

어린이를 생각하는 영유아 교육 · 보육의 방향 연속 토론회

유보통합에서 모든 어린이를 위한 교육 · 보육의 방향은 어떠해야 하는가?

-
- 일 시 : 2022년 10월 15일 (토) 오전 10 ~ 12시
 - 장 소 : Zoom
 - 주최·주관 : 어린이를 생각하는 모임
-



우리를 행복하게해주는 사람들의모임

어린이를 생각하는 모임

일 정

9월 24일 (토)

좌장 : 오채선(한국교원대)

09:30 - 10:00 등록 및 입장

10:00 - 10:40 **발제**
임부연(부산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한국영유아교육과정학회 회장)
: 유보통합에서 모든 어린이를 위한 교육·보육의 방향은 어떠해야 하는
가?

10:40 - 11:40 **토론**

토론 1

박선영(인천동춘초등학교병설유치원 교사)

토론 2

권영화(장애아동보육제공기관협의회 회장)

토론 3

김태정(마을교육공동체포럼 정책위원장)

토론 4

장하나(정치하는엄마들 사무총장)

토론 5

임민정(경북대학교)

토론 6

한중화(강릉원주대학교)

11:40 - 12:00 전체 토론

차 례

발제

- 유보통합에서 모든 어린이를 위한 교육·보육의 방향은 어떠해야 하는가?
임부연(부산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한국영유아교육과정학회 회장)..... 5

토론

- 토론 1
박선영(인천동춘초등학교병설유치원 교사) 30
- 토론 2
권영화(장애아동보육제공기관협의회 회장) 36
- 토론 3
김태정(마을교육공동체포럼 정책위원장)..... 42
- 토론 4
장하나(정치하는엄마들 사무총장) 45
- 토론 5
임민정(경북대학교)..... 52
- 토론 6
한종화(강릉원주대학교)..... 56

발제

어린이를 생각하는 영유아 교육·보육의 방향 연속 토론회

안녕하십니까?

2022년 여름 우리는 아이들의 놀며 배우는 삶을 시간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97년 교육개혁위원회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공교육기관인 유아학교로 통합하자는 논의가 시작되었지만 이해관계자의 갈등으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와 지자체는 영유아교육과 보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 왔고, OECD 국가 중 GDP 대비 보육과 유아교육 분야 공공 지출의 비율이 0.9%로 8위에 이르렀습니다. 동일 연령의 아이들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다니지만 부처가 통합되지 못한 결과 지원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급식비 격차, 학부모 지출 비용, 교사의 자격 등의 격차가 아이들의 삶과 배움의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지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저희 단체를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어린이들이 자신의 이익을 대변해주는 사람들이 자신들을 더 행복하게 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어린이를 생각하는 모임’에서는 각계의 의견을 경청하여 어린이 중심의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 방향 정립을 위한 논의를 지속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활동으로 국정과제인 ‘유보통합’을 주제로 연속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어린이의 관점에서, 학부모의 관점에서 그리고 우리 사회가 기대하는 영유아교육과 보육의 방향을 숙의하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어린이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어른’의 역할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3차 모든 어린이를 위한 교육·보육은 어떠해야 하는가?

일시	2022년 10월 15일(토요일) 오전 10~12시
좌장	오채선(한국교원대학교)
발제	임부연(부산대학교, 한국영유아교육과정학회장)
토론	박선영(동춘초등학교병설유치원 교사) 권영화(장애아동보육제공기관협의회 회장) 김태정(마을교육공동체포럼 정책위원장) 장하나(정치하는엄마들 사무총장) 임민정(경북대학교) 한중화(강릉원주대학교)

- 토론회 종료 후 참가신청자에 한해 자료집 송부 예정(참가신청 무료)
- 참가신청 바로가기: <https://forms.gle/fsLA75hzY2Ckzkmi6>
- Zoom ID: 825 9853 2101/ 암호: 561626
- <https://us02web.zoom.us/j/82598532101?pwd=OFZjb0JyM2qyaE0rRU5PQnlCRWs2QT09>
- 문의 : 박보영 간사(010-2729-4452)
- 주최·주관:



우리들 평범하게사는 사람들의 모임
어린이를 생각하는 모임



□ 1차 토론회 결과

1.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 30년동안 논의만 했고 합의하지 못함
 - 4, 5세 의무교육 방식은 현실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며 내부 논쟁만 악화 됨
 - 국가가 나서서 교육부로 통합한 후 시·도지자체와 교육청이 일할 수 있는 상황조성
 2. 유치원과 어린이집 주무부처로 교육부를 지목하는 이유
 - 평생교육과 생애발달 관점에서 영유아기를 조망할 수 있고, 영유아 시기를 디자인할 수 있으며, 능동적인 학습자에 대한 관점을 유지할 수 있는 틀을 유지할 수 있음
- 토론 및 결론
 - 교육부로 시급히 통합해야 하는데 공감
 - 의무교육은 시급한 유보통합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많음에 공감
 - 돌봄과 유아교육의 갈등을 넘어서야 함

□ 2차 토론회의 결과

1. 교육의 주체로서 부모의 권리, 의무, 책임에 대하여 법률상 격차가 있음
2. 교육부로 부처 통합을 하고, 부모의 요구를 반영한 유아통합 정책을 수립해야 함
3. 부모의 유보통합에 대한 요구
 - 접근성 - 돌봄서비스질-교육의 질-교육보육환경-교사자질 순으로 나타 남
 - 비교적 높은 교사 신뢰도, 낮은 보육정책 신뢰도를 보임
 - 장애 영유아에 대한 서비스 질적 격차 해소
4. 결론적으로 학부모와 함께 영유아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내며 배움이 즐거운 영유아교육 체제를 만들어가야 함.
 - 토론 및 결론
 -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격차를 해소해야 함
 - 질 높은 영유아 교육보육을 당장 시작 해야 함
 - 장애 영유아 어린이의 의무교육 권리를 보호해 주어야 함
 - 의무교육에 대한 부모의 입장과 법률적 해석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후속 토론회 필요 함

유보통합에서 영유아 교육·보육은 어떠해야 하는가: ‘돌봄의 인식론적 전회’를 중심으로

임 부 연(부산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한국영유아교육과정학회 회장)

I. 들어가기

본 발표는 현재 국정과제로 되어 있고 사회전반에서 관심이 고조되어 있는 ‘유보통합’에 대한 논의를 ‘교육과 보육’의 관점에서 다시 설명해 보고자 한다. 먼저 교육과 보육이라는 용어의 의미를 해체와 재구성을 통해 다시 ‘교육과 돌봄’이라는 언표로 전회하여 유보통합을 ‘돌봄통합’의 시선으로 탐구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유보통합의 본질이 교육이라는 용어에서 도저히 분리해 내기 어려운 ‘돌봄’과의 융합적으로 다시 쓰여져야 하며, 이를 통해 돌봄이 포함된 교육과정을 실시하는 온전한 교육으로 다시 쓰는 교육과정으로 실천이 필요함을 제안하고자 한다. 따라서 유보통합은 단순히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기관통합이라는 정책논의에서 나아가 사람에 대한 관심과 배려로 시작한 ‘교육학(pedagogue)’이라는 학문적 담론으로 선회하여 미래의 지속가능한 학교교육을 향하는 모든 학문과 정책적 논의에서 ‘돌봄이 중심이 되는 교육과정’으로 재구성하고, 미래학교교육의 지향점으로 돌봄중심교육과정이 필요함을 제안하고자 한다.

현재 유보통합의 논의는 ‘정책’적 해안 찾기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경향이 높다. 그것은 교육과정 통합에 이어 부처통합, 기관통합, 교사통합, 점진적 통합, 의무교육 등의 정치적 과제에 이슈를 만들어서 해결해 가는 모양새를 가질 수 있다. 앞서 1차와 2차 토론회에서도 이미 논의되었지만 이러한 정책적 논의는 다양한 관점을 수렴하며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논의와 논쟁은 필요한 만큼 충분히 이슈화 하는 것이 더 건강한 유보통합의 틀을 만드는 것이라고 본다. 우리는 앞의 1차와 2차를 통하여 이미 위의 정책적 이슈에 대한 중요한 ‘체계’의 논의를 거친 상황에서, 오늘 3차 토론회의 주제를 ‘교육과 보육’이 어떠해야 할지를 논의하는 장을 만들었다. 이는 앞의 정책적 이슈와는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도 한편으로는 매우 다른 차이를 가진다. 유보통합의

상황에서 교육과 보육은 시스템이나 정책보다 오히려 ‘콘텐츠’에 대한 논의이기 때문이다.

특히 본 발제는 선행된 2번의 토론회에서 초점화 되었던 부처통합과 의무교육 등의 정책적 접근을 기반으로 하여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기관통합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교육의 ‘내용(contents)’에 더 초점을 두어 설명하고자 한다. 향후 유보통합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쟁점으로 ‘교사통합’과 함께 ‘교육시간통합’이 부각될 것이라고 보지만, 이에 대한 논의는 아직 시작조차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교사와 시간 통합은 현재 이미 통합된 교육과정으로써 누리과정과 함께 향후 통합된 유치원과 어린이집 운영에서 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적 사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유보통합은 어느 특정 이해당사자의 편리에 이해 추지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곳에 사는 영유아들과 이들이 양질의 교육을 원하는 부모, 그리고 실제 이 양질의 교육을 좌우하는 주체로서 유아교사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현재 어린이집은 12시간 보육을 근간으로 운영되는 곳이고 유치원은 4-5시간의 법제적 성격의 교육과정과 방과후과정으로 어린이집 보다 적은 7-8시간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유보통합은 쟁점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어떤 형태로든지 통합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만약 이 두 기관을 합하여 ‘유아학교’(가칭)를 만든다고 할 때, 이 유아학교에서 어린이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되기 때문이다. 유보통합이 처음 시작된 20여년전의 상황과 다르게 지금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상황이 ‘누리과정’을 통해 상당한 격차가 좁혀졌다고 볼 때, 지금 당장 유보통합이 이루어져도 큰 혼란이 없을 정도의 상황(송대현, 2022)은, 이제 유보통합의 빅스텝이 이미 이루어 졌고 이제 당장 유보통합의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 당위성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맥락적으로 많은 것들이 유보통합의 운동을 증폭시키는 시점에 있다면, 그 운동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은 그 운동을 저해하는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차이다. 이는 오히려 운동을 만들어야 하는 당사자들이 서로 다른 시선으로 인해 운동성을 늦추는 방식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공유할만한 사항들을 이슈화 하여 대화하여야 한다고 본다. 유보통합은 그 성격이 시급함으로 인해 어떤 정치적 힘의 쏠림 현상이나 우연한 창발적인 방식으로 가장 본질적인 것이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 지점이 ‘어린이’의 삶과 삶의 최우선 가치가 될 것이다. 지금은 다양한 장을 통해 유보통합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토론회는 1차와 2차에 이어 유보통합이 어떠한 형태로든지 실제화 될 때, 즉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합하여 하나의 단일한 유아교육의 상황이 되었을 때, 그 12시간의 운영시간 동안 교육내용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이다. 그리고 더 온전한 유보통합, 즉, 단순히 영유아를 온종일 기관에 머무르게 하는 통합운영이 아닌, 어린이에게 가장 양질의 교육적 성장을 위한 유보 통합이 되기 위하여 돌봄 통합의 논의가 불가피 하다고 본다. 현재 초등학교는 이미 ‘돌봄교실’이라는 통칭으로 매우 다양한 돌봄서비스가 제공되어 시스템적으로 체계화 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초등학교 돌봄교실은 교육과 돌봄을 교육과정과 분리하고, 서비스제공이라는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어 유보통합이 관점에서 볼 때 많은 한계가 있지만 온전한 학교교육형태에서

돌봄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볼 때 어린이집, 유치원, 그리고 초등학교에서 다루는 돌봄과정은 모두 통합적 시선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발제에서 돌봄에 기반한 유보통합의 논의는 초등학교 돌봄교실에 대한 논의를 함께 포함하여 진행할 것이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돌봄통합이 시스템적 통합이라면 온전한 유초연계까지 고려한 통합교육은 돌봄을 완전하게 교육과정에 녹여내는 돌봄중심교육과정이 필요함을 제안하고자 한다. 돌봄중심교육과정 통합은 시스템적 통합을 넘어서서 교육의 내용에 대한 교사전문성이 포함되는 ‘콘텐츠통합’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본 발제는 미래형 교육을 추구하는 유보통합이 초등학교까지 슬기 없는 교육과정(seamless curriculum)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돌봄에 대한 심화된 논의를 ‘돌봄의 인식론적 전회’의 시선으로 풀어보고자 한다.

돌봄에서 서비스란 함은 돌봄이 필요한 대상에게 돌봄을 베푸는 행위로 접근할 때 ‘서비스’의 개념이 등장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자녀양육과 보호가 필요한 부모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개념으로 보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은 돌봄을 매우 제한된 관점, 주체와 객체를 분리해 버리는 이원론적 접근이지만, 돌봄을 필요로 하는 주체가 스스로 돌봄의 행위를 하는 자(인식의 주체)로서 접근할 때는 돌봄에서 주체와 객체를 분리해 가기 어렵다. 이는 돌봄의 주체가 누군가로부터 서비스를 받는 개념이 아닌, 스스로 돌봄의 인식을 행하는 자로써 접근한 주체의 인식론적 의미로써 ‘care’를 포함해야 한다. 본 연구는 돌봄의 주체와 객체의 분리로써 표현되는 돌봄서비스의 개념에서 교육적 차원에서 돌봄은 돌봄의 인식론적 주체와 객체가 분리되지 않는 통합적 형태임을 함께 살펴보아야 함을 제안하며, 유보통합에서 보육과 돌봄이 문제를 교육과 분리해내기 어려운 일원론적 접근 그리고 인식론적 관점에서 논의를 해나가고자 한다.

이를 위한 논의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 1) 유보통합 논의에서 쟁점이 되는 용어와 명칭들, 즉 교육과 보육, 양육, 돌봄 등의 언어를 의미관계로 풀어보고
- 2) 이 의미관계의 핵심을 ‘돌봄’으로 초점화 하여 ‘돌봄의 인식론적 전회’의 담론적 배경과 필요성을 논의해 보며
- 3) 교육과정 안에 들어온 돌봄의 인식론을 ‘돌봄지도만들기’와 사례중심으로 탐구해 보고
- 4) 마지막으로 유보통합이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교육과 보육의 문제를 학교에서 ‘돌봄통합교육(과정)¹⁾의 실천으로 제안해 보고자 한다.

1) 본 발제문에서 ‘돌봄통합교육(과정)’이라는 용어는 현재 돌봄을 교육과정 밖으로 이해하려는 은폐된 무의식을 환기하면 돌봄이 교육과 분리되지 않기 위하여 교육과정안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의미를 담아 새롭게 생성한 언어 표기임을 밝힌다. 즉 돌봄통합교육(과정)은 학교에서 돌봄이 교육과정이라는 학교의 물리적 시간과 의미론적

II. 유보통합에서 논의와 쟁점

□ 유보통합에서 교육과 보육 용어 다시 읽기

- 일반적으로 유보통합은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을 말하는 것으로, 교육과 보육의 통합을 말한다. 유아교육에서는 오랫동안 유아를 교육하는 행위와 단순히 양육하는 행위를 구분하기 하기 위하여 교육과 보육을 이원론으로 접근해 왔다.
- 여러 학술자료에서 보육은 영어표기를 통해 ‘care(돌봄)’의 표기를 쓰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용어는 양육(rearing and feeding)이라는 말로 의미화 되는 경향이 높다. 따라서 유아교육에서 ‘유보통합’을 논의할 때 ‘양육, 보육, 돌봄’의 용어는 혼재되어 있고, 의미가 조금씩 미끄러지며 다른 의미체계를 가지기 때문에 교육과 보육의 통합은 양육과 돌봄이라는 용어를 포함하는 학술적 논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 한편 유보통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을 말하는 것으로 서로 다른 형태로 운영되는 2개의 유아교육기관 유형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유치원은 교육을 하고 어린이집은 보육을 하는 이항대립적관계로 의미체계가 만들어 진다. 여하한 교육과 보육, 그리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하나의 체제로 통합하는 것을 유보통합이라고 할 때, 이 깔끔한 이원론적 인식에서 다시 등장하는 용어가 ‘돌봄’의 용어이다. 왜냐하면 초등학교에서는 교육을 보육과 구분하는 용어로 ‘돌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 초등학교 ‘돌봄교실’살펴보기

- 초등학교는 유치원과 같이 교육에 초점을 두지만 최근 ‘초등돌봄교실’에 대한 요구도가 높고 국가차원에서 지원도 많아지고 있다. 유아교육에서는 ‘보육’이라는 말을 주로 사용하지만 초등학교에서는 ‘돌봄’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므로 마치 보육과 돌봄은 인식론적으로 발달상에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 즉 양육-보육-돌봄의 용어의 인식론적 위계가 형성되는 뉘앙스를 준다. 유아교육에서도 보육을 사용하지 더 이상 양육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는 것처럼 초등학교도 초창기 ‘보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지만, 이후 ‘돌봄’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지금까지 ‘돌봄교실’로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이다.

<표 1> 초등학교 초창기 돌봄교실 추진 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 저학년 ‘<u>방과후 교실</u>’ 도입 정책 발표 및 시범운영(’04년, 28개교) - (운영 시간) 학기중 12:00~19:00, 방학중 08:00~19:00 • ‘<u>종일돌봄교실</u>’(초등보육교실을 야간까지 운영) 시범운영(’09년, 300개교) • <u>초등보육교실을 ‘초등돌봄교실’로 명칭 변경 및 확대</u>(’10년, 6,200실) <p style="text-align: right; font-size: small;"><출처: 초등돌봄교실 길라잡이 (2022 개정판)></p>

- 위의 표를 보며 유아교육과 초등학교에서 교육을 교육이 아닌 형태와 구분하기 위하여 사용한 용어의 변천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양육-보육-돌봄-교육’의 위계적 용어

- 돌봄이 많이 필요한 어린시기 영유아기와 초등학교 저학년 까지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돌봄 관련 용어의 변천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어린이집은 양육이라는 인식에서 점차 보육으로 개념을 정리하면서 보육을 대표적 용어로 사용한다.
- 유치원은 교육과 구분되는 차원의 돌봄을 초창기 양육의 개념에서 보육 그리고 지금은 교육과정과 구분되는 차원에서 방과후과정으로 용어를 정리하고 있다.
- 초등학교는 방과후과정이라는 용어와 보육을 혼재하여 사용하다가 최근 ‘돌봄’으로 용어를 정리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린이집 : 양육 - 보육
유치원: 양육-보육-방과후과정
초등학교: 방과후과정-보육-돌봄

- 이러한 연유로 양육-보육-돌봄은 연표가 발달상으로 위계를 가지는 것처럼 보인다. 양육과 보육은 더 어린시기 그리고 돌봄은 좀더 큰 아동으로 구분지어 용어가 변천한다. 여기서 제일 상위 발달에 해당되는 용어가 ‘교육’이다. 마치 양육-보육-돌봄-교육으로 위계가 만들어 지고 있다.
- 흥미로운 것은 유치원은 초등학교가 2004년 초창기 사회경제구조의 변화로 돌봄의 수요가 높아지고, 영유아 보육지원에 비해 미흡한 돌봄 지원을 시작하면서 사용한 용어가 ‘방과후과정’인데, 유치원은 지금도 ‘방과후과정’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 방과후과정이 초등학교에서 유치원과 차별화하기 위하여 돌봄교실로 명칭을 변경한 것인지, 초등학교에서 돌봄 관련 명칭 변경은 ‘방과후과정-보육-돌봄’으로 정리된다.
- 따라서 교육이라는 기표와 구분되는 어떤 대응적 기의체계로 활용되는 여러 용어 중에 ‘돌봄’은 이는 유아교육과 초등교육, 그리고 전체 ‘교육’이라는 의미체계에 걸쳐 있다는 점에서 오늘날 유보통합을 교육과 보육으로 탐구할 때 매우 중요한 단어가 ‘돌봄’이다.

□ 유보통합에서 보육과 돌봄의 용어 해체하기

- 본 발제에서는 유보통합을 교육과 보육의 관점에서 조명해 보기 위하여 핵심용어를 ‘돌봄’로 초점화 하고자 한다. 돌봄(care, caring)은 단순히 보육과 양육과 구분되는 뉘앙스를 가지지만 양육과 보육을 모두 포괄하는 포식자 용어이고, ‘교육’과 의미체계상 이항대립적 관계에 위치하며 유보통합의 핵심적 인식론²⁾으로 부각된다.
- 유보통합에서 돌봄이 초점이 되는 이유는 유보통합의 큰 가치에 공감되어면서도 실

2) 유보통합에서 돌봄을 인식론으로 접근한다는 것은 인식론적으로 탐구의 계기와 단초가 됨을 의미 하며, 인식론은 단순히 사실이나 실천용어를 넘어 우리의 이해, 앎, 지식의 근거로서 탐구를 말한다.

제 통합이 대상이 되는 연령, 통합의 방식에 큰 차이가 있으며, 이 차이의 근원이 ‘돌봄의 인식론’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 최근 유보통합과 관련된 다양한 토론회와 정책세미나 등에서 주요한 이해집단으로 등장하는 공립유치원 교사와 초등학교 돌봄교실 정책을 둘러싼 이해당사자간의 이견도 모두 ‘교육’과 ‘돌봄’의 이원론적 인식에서 출발한다.
- 교육과 보육에서 보육은 다시 양육과 돌봄으로 의미가 미끄러지고, 양육이 양육 대상을 먹이고 씻기는 신체적 노동을 지시하는 경향이 높다면, 돌봄은 관심과 관계, 배려의 의미로 활용되며 정서적 노동을 지칭하는 경향이 높다.
- 현재 유보통합의 연령통합 혹은 연령통합을 둘러싼 이해당사자의 차이를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표 2> 연령에 따른 교육과 보육, 돌봄통합의 의견차이

국가책임 (의무교육)			교육 시간 이후의 운영		교육과 돌봄
초등 1-2학년	돌봄	교육·돌봄분리	돌봄교실		돌봄분리
교육	보육 (양육)		교육	보육	
5세 교육	0-4세	유보분리	돌봄교실	연장보육	
4-5세 교육	0-3세	유보분리	방과후과정	연장보육	
3-5세 교육	0-2세	유보분리	방과후과정	연장보육	
0-5세 교육		유보통합	?		돌봄통합

- 위의 표에서 보면 초등학교는 교육과 돌봄의 분리시스템의 고착화 형태이다. 반면에 유아교육은 0-5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연령에 따라 상이한 유보분리과 유보통합의 주장에 차이가 있다. 가장 온전한 형태의 유보통합은 0-5세의 연령구분 없이 교육과 보육을 통합하는 안이고, 돌봄이 통합되는 안이다. 다만 0-5세 통합 안에서 교육과정 이외의 시간을 어떤 명칭을 사용할지 논의가 미흡하다. 초등학교처럼 오전 교육과정 반 오후에 돌봄교실로 지칭할지, 방과후과정으로 지칭할지, 또 다른 명칭이 필요할지 논의가 필요하다.
- 위의 연령에 따른 유보통합의 차이는 모두 ‘돌봄’보다는 ‘양육’에 대한 이해를 배경으로 함으로 알 수 있다. 0-5세 유보통합을 둘러싼 이해차이는 모두 연령에 따른 분리인데 이는 곧 모두 ‘양육’ 즉 먹고 씻기는 신체적 노동에 대한 이해관계에 따라 연령 분리 안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양육이 필요한 0-2세부터 점진적으로 양육에 대한 노동행위의 강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즉 돌봄이라는 ‘관계지향적 정서노동’보다는 ‘양육’이라는 ‘먹이고 씻기는 신체노동’에 대한 기준으로 연령분리안이 제기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위의 안을 따라가 보면 초등학교 1-2학년과 5세 유보분리안을 같은 맥락에서 양육을 배제한 시스템을 가능해 보이지만, 4세 이하의 연령은 ‘양육’을 배제하기 어렵게 된

다. 이러한 연유로 영유아교육에서 양육의 배제가 가능한 5세를 가장 초등학교 돌봄 교실로 유형화하는 논리가 만들어 질 수 있다.

- 위의 갈등과 혼선은 이러한 질문을 던질 수 있다.
 - 교육에서 양육을 분리해 낼 수 있는가?
 - 교육에서 돌봄을 분리해 낼 수 있는가?
- 발표자의 개인적 생각은 교육에서 먹고 찢는 문제에 초점을 둔 양육은 연령에 따라 점진적으로 분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관계'와 '관심'의 성격을 가지는 돌봄은 교육에서 점진적으로도 분리가 가능하지 않다고 보고 이는 또한 돌봄에 대한 다양한 담론, 학문적 연구에서 나타나 있다.

III. 돌봄의 인식론적 전회

□ 돌봄에 기반한 유보통합

- 지금까지 살펴본 돌봄 관련 이슈는 단순한 양육을 넘어, 관계와 배려, 존중의 행위이자 윤리적 가치로 이해 함 지금까지 돌봄 담론에서 배제된 '인식론적 돌봄'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많은 철학적 심리학적 차원에서 돌봄 담론에 대한 연구와 주장이 제기 되고 있다.

□ 페미니즘 관점에서 돌봄의 기능

- 일반적으로 돌봄은 여성주의 관점을 혼합하여 돌봄을 여성 특유의 역할로 이해한다. 이는 모성에 기반하여 어머니가 자녀를 키우는 헌신과 양육의 형태를 염두에 두고 있다
- 코로나 상황에서 가정에서 여성의 양육과 가사일 노동의 증가와 가정의 불화를 겪는 사태가 증가하며 어린이들이 위험에 내몰리는 상황이 증가한다. 국가 위기 상황에서 돌봄 취약계층이 가장 약자로 내몰린다. 특히 여성은 긴급한 양육 요구가 생길 때 가장 자연적으로 책무가 주어지는 상황으로 들어가는 집단이다. 어린이와 여성은 전쟁과 재난시기에 가장 취약하다.
- 이러한 취약한 계층과 돌봄은 '건강한 사회'와 연결고리를 가진다. 학교는 이 부분에서 취약한 돌봄 계층을 위한 피난처 이상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학교가 할 수 있는 일은 돌봄을 분리해 내는 일이 아니라 학교가 가진 모든 자산을 활용하여 돌봄 취약계층과 함께 공행하는 일이다.
- 최근 급격한 인구감소에 따른 핵가족 젊은 노동계층으로 쏠리는 양육부담을 국가는 학교를 매개로 해결해 가기 위한 접점을 찾아야 한다. 이는 학교와 사회가 '보편적 돌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가기 위한 돌봄사회를 말한다.

□ 돌봄의 인식론적 특성에 주목

- 돌봄을 학교와 교육이라는 맥락과 연결하여 처음 담론화 한, N. Noddings와 K. Gilligan의 논점의 핵심은 오히려 돌봄은 훨씬 실용적인 관점보다는 인식론적인 용어로 활용되고 경향이 많음을 알 수 있다.
- 이러한 논점을 따라가 보면 교육과 돌봄의 분리현상과 통합현상은 용어상으로 모순을 안고 있다. 교육은 원래 관심과 관계를 포함하지 않고는 의미완성을 하기 어려운 단어이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돌봄의 인식론적 담론에 뿌리가 될 수 있다. Gilligan의 주장은 여성의 판단력에 대한 것으로, 인간은 인식과 판단에서 개인의 경험과 정서와 무관한 사고를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행위에 돌봄의 인식이 들어감을 설명하는데 논거가 되고 있다. 이는 아래 돌봄의 인식론적 전회에서 좀더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 새로운 ‘돌봄사회’ 출현

<표 3 > 『돌봄 선언』 자료

	<p>2017년 런던에서 학술 모임으로 시작한 단체 ‘더 케어 컬렉티브(The Care Collective)의 회원들이 『돌봄 선언』이라는 책을 펴냈다. 이 책에서 ‘돌봄’이라는 용어는 사회복지학의 일부 영역에서 주로 쓰이는 약자에 대한 케어(care) 의미를 뛰어 넘어, 사회를 변혁하는 핵심적인 개념으로 확장하여 사용된다. ... 중략 ... 돌봄은 인간의 본질적 모습이며 이는 가장 숭고한 것이어야 한다... (p. 186)</p>
--	--

- 돌봄 사회(The care manifesto) 신자유주의를 넘어 보편적 돌봄사회를 주창 함. 여기서 돌봄은 1) 신체적 돌봄(care for) 2) 정서적 돌봄(care about) 3) 정치적 돌봄(care with)으로 볼 때 돌봄은 가장 인간적이고 숭고한 것으로 여기는 신 돌봄사회, 새로운 커뮤니티 주장함(손병돈, 2022)
- 양육의 개념과 비슷한 1) 신체적 돌봄은 먹고, 씻는 양육의 돌봄이 필요한 노약자들에게 제공하는 돌봄을 말하며, 2)의 정서적 돌봄은 사람에 대한 관심, ‘직접적인 염려와 관심을 넘어서서, 사람, 자연 등 생물들이 서로 연결되고 상호의존적인 존재로 인식하여 그러한 존재들과 살아가는 핵심적인 행위’의 돌봄으로 보며(p.186)

- 정치적 돌봄은 사람과의 직접적 관계와 연결을 넘어서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이념과 활동에 참여하며, 대안경제나 연대경제, 기후변화와 생명체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큰 이슈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중요한 건 관심을 넘어 참여와 ‘활동’ 즉 프락시스를 요청한다는 점이다.(p. 188)
- 여기서 돌봄은 ‘보편적 돌봄’으로서 모든 돌봄의 행위가 가정에서 뿐만이 아니라, 친족, 지역사회, 국가, 지구전체를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우선시 되는 것을 의미한다(p. 188).
- 더케어컬렉티브는 ‘돌봄선언’을 통해 현재 우리의 사회와 지구를 ‘다면적 위기상황’으로 진단하고, 휴먼의 존재자 전체가 돌봄의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해 가기 위하여 ‘공동의 강령’으로 돌봄을 인식한다.

□ 제4의 인식론적 돌봄의 필요성

- 더케어컬렉티브에서 주장한 위의 3가지 유형의 돌봄 이외에 제 4의 유형인 ‘인식론적 돌봄’을 제안하고자 한다. 인식론적 돌봄은 인간이 세계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지각의 작용자체에 내재한 돌봄의 속성을 말하는 것으로, 인간에게 인식은 세계와의 관계 맺기의 작용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관심과 관계, 함께 공존함의 형태를 인식론적 돌봄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포스트휴머니즘의 인식론과 연대하며 학교에서 새로운 돌봄 교육의 비전을 제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 포스트휴먼 관점에서 돌봄의 기능

- 최근 ‘돌봄 선언’은 휴먼중심 모더니즘 사회에서 포스트휴먼으로 옮겨가는 시대에 ‘여성성과 돌봄’에 주목한다. Nancy Fraser의 우주적 돌봄 모형(universal caregiver model) 등을 통해 포스트휴먼사회에서 페미니즘 돌봄윤리를 조명한다.
- Haraway는 급진적으로 여성과 돌봄윤리, 미래사회 휴머니즘으로 제안하는 인간과 비인간의 혼종의 상황 등에서 ‘난잡한 돌봄 공동체’를 제안한다. 이는 학교의 기능을 급진적으로 재개념화 한다. 난잡한 돌봄 공동체(promiscuous care community)는 자연스럽고, 생태적이고, 시급한 것이지만, 우연적이고 다양체들의 무차별적인 뒤섞임이라는 ‘혼종의 돌봄 공동체’로 번역을 제안한다.
- 포스트휴머니즘적 관점에서 보면 우주와 세계, 인간과 자연은 얽혀 있고, 인간이 중심이 되어 자연을 돌보는 인간우월론적 관점을 벗어난다. 자연은 인간에게 스스로 운동하고 변화하는 자연에게 어떤 ~관한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을 관계로 얽혀 있다. 시든 꽃, 나무열매, 폭풍우와 지진 등 모든 자연과 우주적 현상은 동물이 그러하듯 인간의 신체와 얽혀 있다. 인간은 우주와 자연 속에서 관계와 관심, 서로 케어링(돌보는)의 관계로 물질화 되어 있다. 인간이 자연과 공생으로 얽혀 있는 것은 인지가 아닌 체화된 신체이다. 자연의 현상, 사물, 물질 등과 인간의 감각과 신체가 융합되어 물질적으로 운동한다.
- 인간과 비인간, 사물과 인터넷, 로봇과 기계들은 인간신체로 침투하여 기계가 들어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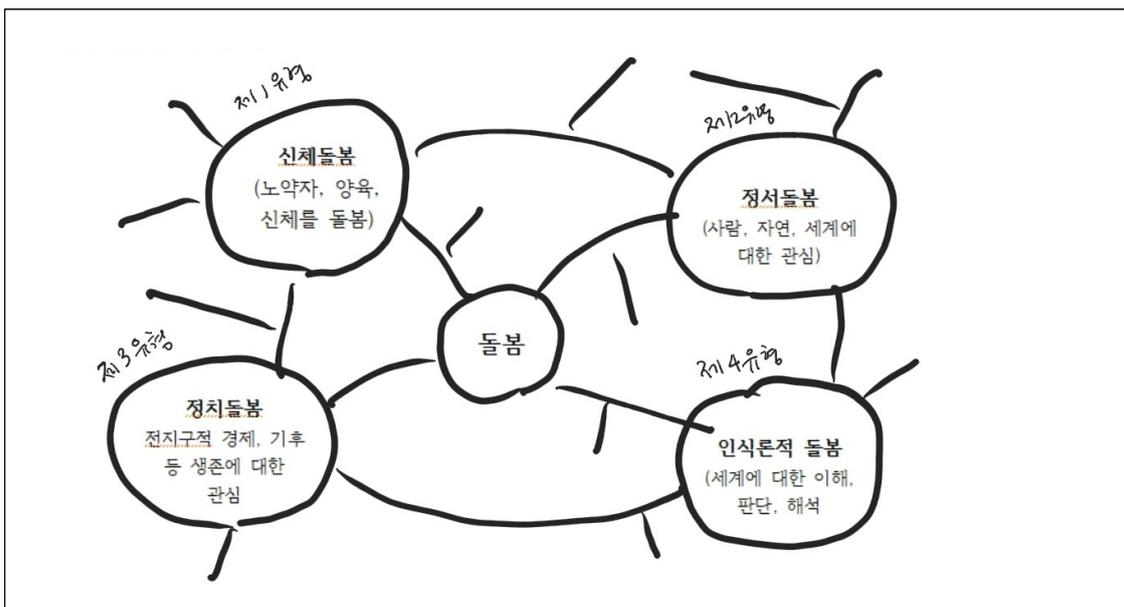
인간과 기계인간의 구분이 불명확해지고 휴먼이 무엇인지 다시 묻게 한다.

□ 포스트휴먼 관점에서 돌봄

- 학교는 지속가능한 미래사회가 공존해야 하는 인간을 길러내고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한다. 과거 휴먼 관점에서 세계에 속한 인간을 ‘그 세계를 바로보고 분석하는 인지적 훈령’을 통해 관계가 절단된 인간을 양성하였다면, 이제 관계가 회복되는 인간을 교육해야 하는 학교가 필요하다.
- 학교는 인간이 인간을, 인간이 사물을, 인간이 기계를 인간이 자연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사물, 기계, 자연, 세계에 관하여 정치적, 사회정서적, 신체적으로 서로 돌보는 관계에 민감하고 스스로 그 체화된 인식에 충실하는 감각을 회복하는 역량을 키우도록 지원해야 한다.

III. 돌봄지도 만들기와 돌봄의 인식론

□ 돌봄지도 만들기



□ 4가지 유형의 돌봄지도

- 제1유형 신체돌봄: 먹고, 씻는 양육의 필요한 약자들을 위한 신체적 돌봄
- 제2유형 정서돌봄: 직접적인 염려와 관심을 넘어서서, 사람, 자연 등 생물들이 서로 연결되고 상호의존적인 존재로 인식하는 행위
- 제3유형 정치돌봄: 사람과의 직접적 관계와 연결을 넘어서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이념과 활동에 참여하며, 대안경제나 연대경제, 기후변화와 생명체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큰이슈에 참여

- 제4유형 인식론적돌봄 : 관계적으로 사물과 사건, 세계를 인식하는 앎의 유형으로 단순히 지식의 구성과정이 아니라, 지식구성 이전에 의식에 직접적으로 주어지는 감각의 작용으로 인간은 홀로 세계를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와 내부작용하며 알아간다.

□ 영유아기 놀이에서 돌봄인식론

- 제4의 유형의 돌봄이 인간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영유아기의 놀이상황에서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영유아기는 인식론적 돌봄에 가장 충실한 시기이다. 영유아기 어린이는 모두 포스트휴먼적이다(Murris, 2021). 그들은 사물을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사물과 대화한다. 사물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사물과 뒤섞여서 내부작용한다. 사물에 따라 자기 신체를 변형하고 조율하며 가장 안전된 상태로 서로 운동하며 생존해 간다.

<표 4> 유아의 돌봄인식론적 행위

'별이 되고 싶은 유아'	돌봄인식론의 주체로서 어린이
	<p>유아들은 우연히 죽은 꿀벌이 갑자기 되살아 나면서 꿀벌에 대한 관심이 증폭하고, 교실로 돌아와서도 꿀벌이 어떻게 봉봉거리며 대화를 하는지 궁금해 한다. 교사의 도움으로 꿀벌과 꽃의 막대인형을 만들고, 빨대를 이용하여 꽃을 꿀을 빨아 먹는 행동을 하며 즐거워한다. 어떤 유아는 꿀을 너무 많이 빨아먹어 소파에 누워 잠시 쉬고 싶다고 별처럼 말한다. 별모양의 머리띠를 벌의 날개를 입고 계속 별처럼 돌아다닌다. ~ 꿀벌아 나랑 놀자..어디있니? ...</p>
<p>지효가 화단에 동백꽃잎들이 떨어진 것을 발견하고 동백꽃잎을 줍는다. 지효가 '아 정말 부드럽다.'라고 말하자 신유가 '살살 만져야겠다. 우리 동백꽃잎 케이크 만들지. 정말 맛있을 거야.' 하며 제안한다. 지효는 동백꽃잎을 주워 오고, 신유는 동백꽃잎으로 케이크를 만들기로 한다.</p>  <p>출처, 개정누리과정 해설서 93, 109-113.</p>	<p>비오는날 길을 걷는 것은 빨리 비를 피하거나, 비를 맞지 않기 위하여 우산을 쓰는 등의 행위를 유발한다. 비는 인간이 행위를 간섭하여 비와 함께 운동하도록 한다. 유아들이 우비를 입고 걸을 때 만들어 지는 발자국은 비와 인간, 흙이 같이 만들어 내는 물질적 변화이다. 빗소리는 우비와 신발에서 소리를 나게 하고 유아들은 그것을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얽혀있는 신체를 인식한다. 동백꽃잎은 만지고 싶은 충동을 일으키고, 부스러지지 않게 '살살 만져야 하는' 물질로 유아가 손가락 움직임을 아주 조심스럽고 사랑스러운 동작을 만들어 내도록 유아를 움직인다(물질과 내부작용)</p>

유아들은 계속 운동하는 세계속에 속한 존재자로서 '함께 더불어 사는 존재자'이다. 유아에게 식물과 동물은 관찰이니 지식의 대상이 아니라' ~ 세계에 관한 지극한 관심(caring about)'으로서 돌봄의 마음이 작용한다. 인간중심적 돌봄은 대상을 보호의 대상이 되거나, 구조주의적 관점을 '흥미와 관심의 지속성'이 될 수 있으나, 포스트휴먼존재로서 유아는 꿀벌과 친구가 되고 나도 꿀벌이고 싶은 관계론적 마음이 운동한다. 유아는 꿀벌과 비, 동백꽃, 모래를 자신의 신체와 뒤섞이며 내부작용한다.

유아가 그것을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세계가 유아의 행위를 유발하는 인식론적 관계에 기반하여 세계를 알아간다. 유아는 사물의 특성을 잘 알고 있고 더 알고 싶어하고 그 사물이 지속적으로 자신과 관계맺으며 생명성을 유지하도록 돕고 싶어 한다. 그리고 별과 모래, 꽃잎에 대해 어른들이 기대하는 지식도 많이 알게 된다. 이것은 확실히 인지적이기보다 신체적이고, 감정적이기보다 인식론적이다. 돌봄의 인식행위는 두뇌의 사고, 언어, 판단을 거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서로 내부작용하며 알아가는 배움이다. (Taguchi, 2017)

- 영유아기의 놀이를 통한 배움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영유아가 어린이는 제2와 제4의 돌봄의 유형 속에 살고 있음이 보여 진다. 영유아기 어린이의 세계인식은 돌봄관계에 기반하여 운동한다. 이러한 유아기 특성에 반영한 돌봄중심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 현재 영유아기 돌봄중심 교육과정은 제4의 돌봄에 사는 어린이를 어른들은 제1유형의 돌봄만으로 정책적 논의를 하는건 아닌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 학교는 교육과 돌봄을 양육의 관점으로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교육에서 ‘돌봄’을 정서와 정치적 관계로 회복해 가도록 도와야 하며, 교육과정 내부로 제4유형의 돌봄의 인식론적 접근이 들어와야 한다. 이것을 다소 모호한 양상으로 실천하고 있는 곳이 어린이집 과 유치원의 누리과정 영역이다. 놀이중심 유아교육과정을 제4돌봄의 인식론적 세계에 사는 어린이의 인식행위를 교육과정의 자율성 영역으로 존중하도록 강조하였다.
- 현재 유아·놀이중심 교육과정은 유아의 놀이와 배움에 초점화 되어 있지만, 유아가 경험하는 세계 속에 유아의 생태적으로 작용하는 인식론적 특성, 즉 제4유형의 돌봄의 관점에서 학문적 논의가 더 깊어 질 필요가 있다.
- 이러한 논거는 현재 유보분리의 쟁점을 더 열린 토론으로 만들어 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초등학교돌봄교실의 논점과 절벽교육과정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논거가 될 수 있다. 그것은 시간의 편제가 아니라 인식론적 전회에 기반하여 모든 교육과정이 돌봄의 인식론에 기반하도록 개편하는 것을 말한다.

□ 돌봄의 인식론

- 인식론은 철학의 한 가지로서 에피스테메(epistemology), 즉 인간의 삶과 인식, 지적인 행위로서 이해와 판단에 관심을 가지는 학문이다.
- 최근 존재론과 인식론을 대비적인 관계로 보는 관점에서 존재론이 인간의 삶의 양상, 일상적이고 개인적인 차원의 정서와 감응, 살아가는 존재로서의 모습에 관심을 둔다면, 인식론은 인간의 생각, 지각, 사고의 형태에 관심을 둔다.
- 최근에는 존재론과 인식론이 분리될 수 없음에 대한 담론이 지배적인데, 인간은 존재하면서 동시에 인식한다. 인간은 존재하기 위하여 인식하고, 인식함으로써 존재를 확인한다.
- 돌봄은 ‘~ 관하여 가지는 관심’ 이라는 점에서 행위자체에서 인식을 전제로 한다.

- Gilligan의 ‘다른 목소리’는 여성주의 관점에서 사건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방식의 남성과의 차별성, 고유성을 드러내 주는 의미에서 ‘여성적 인식론’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돌봄은 행위 이전에 인식이고 판단을 전제로 한다는 점이다. 최근에 돌봄을 양육과 연계하여 신체적 노동으로 인식하는 것과 근원적으로 Gilligan의 출발점을 인식론이었음을 알 수 있다.
- 돌봄의 인식론은 발달심학의 관점에서 보는 ‘인지발달’과 차별점을 가지는데, 이것은 오히려 더 공감에 기반한 무의식적 인식행위라는 점에서 인지발달과 차이는 ‘직접적으로 언표나 두뇌에서 사고’를 거치는 행위가 최소화 되었다는 점에서 인지론과 차별되나, 그것이 인식이고 판단이라는 점에서 인식론이다. 인식론에서 인지작용은 작은 개념이고 나중에 사고 ‘표상’을 포함하는 전체에서 감환된(reduction) 인식행위이다. 이때 인지작용을 하는 당사자는 경험에 기반하여 세계를 알아가는 데 이때 ‘~관심’이라는 돌봄의 의식이 작용한다.

□ 학교 교과수업에서 돌봄의 인식론

- 인간의 인식론적 행위는 앞뒤의 경험이 절단된 백지상태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사회교과의 ‘도시와 촌락’의 개념을 배울 때 학습자는 인식행위는 대단히 복잡하다. 교사가 가르치고자 하는 지식과 학습자가 경험하는 세계에는 많은 간극이 있고 학습자가 배우는 과정에는 돌봄의 인식론적 행위가 들어있다.
- 인간의 ‘앎’의 행위는 정서가 매개한다. Bergson(2005)에 의하면 정서는 신체가 가진 경험에 대한 기억에서 만들어 진다. 인간의 인식행위는 그 자체가 경험과 정서의 복합물이고, 언어와 표상의 형식은 사고와 지식의 작용으로 뒤이어 발생한다. 이때 인간은 의식의 아주 근원에서 작용하는 기억-이미지는 모든 인식행위의 근원이다.

<표 5> 수업에서 돌봄인식론이 운동하는 사례

<p><교실 상황> 김교사의 반에서 도시와 촌락이라는 수업이 진행되고 있음</p> <p>김교사 :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 도시와 촌락에 대한 거예요. ‘도시’는 사람이 모여 사는 취락 가운데서 특히 그 규모가 크고, 밀집한 지역의 중심이 되는 곳’이고, ‘촌락’은 시골에 이루어진 마을로서, 주민의 생활에 따라 농촌·어촌·산촌 등이 있어요</p> <p>아이들 : (말이 없고 조용함)</p> <p>김교사 : 사람들은 농경 생활을 하게 되자 한곳에 머물러 살면서 촌락을 이루었어요...</p> <p>아이들 : (교실의 분위기가 잠시 조용하고 침묵이 흐르고 아이들이 갑자기 질문을 한다)</p> <p>선생님! 우리는 촌락이 아니지요? 우리 마을은 촌락이 아니지요?</p>	<p>왼쪽의 교실상황에서 ‘도시와 촌락’이 차이를 배우는 것이 목표인 수업에서 초점은 ‘지식론’이고, 아이들은 이에 대한 인식행위, 즉 이해와 판단을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교사의 기대와 아이들의 답은 일치하지 못하고 의미가 미끌어진다(Derrida). 아이들은 촌락의 차이를 말하기 보다는 ‘우리 마을이 촌락이 아니기를’바라는 말을 하여 내가 사는 마을에 대한 관계론적 인식(caring about)을 하고 있다. 여기서 촌락은 아이들이 사는 경험의 세계이고, 도시와 촌락은 개념적 지식이다. 선생님의 질문은 관념적 지식에 근거하고 있고, 아이들의 판단은 직접적으로 신체에 주어진 경험에 기반하여 돌봄의 판단을 한다(Gilligan). 모든 학습은 학습자의 경험세계와 인식이 서로 분리되지 않고 작용한다.</p>
--	---

- 위의 도시와 촌락 수업 에피소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교사와 엇박자를 달리는 아이들의 학습부진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학습자의 배움은 대단히 복잡한 인식행위가 매개한다. 기억에 내재한 경험들, 기억이미지가 만들어 내는 '주체가 간섭 할 수 없이 자발적으로 떠오르는 자기마을에 대한 기억들'은 도시와 촌락이라는 언표를 이해하는데 의식의 지층을 형성하는 것들이다(Bergson, 2001;2005)
- 오히려 이 수업에서 본질은 '돌봄'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더 수월하다. 교사가 의도한 지식과 아이들은 '우리 마을이 촌락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은 지식구성이 초점이 아니라 돌봄에 근거한 인식론에 있다. 아이들에게는 먼저 경험세계 '자신이 사는 마을에 관한 관심, 기억, 경험, 존중이 있고' '촌락'이라는 사회적 언표에 대한 거부와 거리두기 판단을 하는 인식행위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우리 마을은 촌락이 아니지요?' 질문은 도시와 촌락이 아님에 대한 인식론적 판단을 이미 발생하였음을 말하고,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은 자신이 사는 마을이 도시에 비해 촌스럽지 않기를 바라는 '~관하여 관심, 배려, 종종'을 내포한 돌봄에 기반한 인식론이다.
- 위 에피소드에서 돌봄의 인식론은 기억의 지층에서 복층으로 발생한다.
 - 1) 아이들이 자기 마을에 대한 경험적 인식론(마을과 뒤섞여진 체화된 인식론)
 - 2) 자기 마을이 촌락이 아니기를 바라는 관계지향적 인식론(돌봄의 인식론)
 - 3) 저 수업을 주목할 만한 수업으로 텍스트로 만들어낸 교사의 인식론(해석학적 인식론)
 - 4) 그 교사가 아이들의 질문을 돌봄의 관점에서 이해하기 시작한 교사의 인식(돌봄의 인식론)
- 학교는 도시와 촌락이라는 언표행위, 이미 사회가 고정된 기표-의의를 부호화 한 언어를 학습자의 정서와 무관하게 암기하기를 원하는 인지주의 교육과정을 멈추어야 한다.
-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돌봄의 인식론이 개념지식인식의 하위수준이 아니라는 점이다. '우리마을이 촌락이 아니지요?'라는 아이들의 반응은 이미 도시와 촌락이 차이를 알고 있음(개념적 지식이해)에 기반하여, 촌락에 대한 돌봄의 인식론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이 수업에서 학습자의 돌봄의 인식론은 학교가 가르치고자 하는 개념적지식의 불완전성을 드러내고
- 이를 기반으로 초등돌봄교실이 교육과 돌봄을 분리하여 돌봄교실에서 학습자의 돌봄에 기반한 인식론적 학습에 주목하지 않음은 아쉬움이 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모든 인간, 특히 어린아이와 초등학교 저학년을 포함한 아동들이 모두 제4유형의 돌봄지대가 필요함을 학교가 더 환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모든 어린이는 돌봄의 인식론적 주체이며, 포스트휴먼적이다. 그들은 모두 마을과 나무, 어른과 친구들, 동네와 얽혀 있고 서로 내부작용하며 '관하여 관심을 가지는'자들이다. 인식론적으로 어린이들은 돌봄의 행위주체자이고 미래형 지식을 제안하는 전령

처럼 이해되어야 한다.

- 학교는 어린이들의 돌봄중심 인식론적 특성을 어른들의 표상행위만을 위하여 절단하지 않아야 한다. 아이들은 신체적 돌봄을 필요로 하지만 정서와 인식론적 돌봄에 어른보다 더 유능하다. 세계를 알아가는 지식은 지혜와 관계, 배려속에서 형성되면 돌봄의 인식론을 중심으로 한 학교교육이 미래형 교육과정 논의의 근간이 되어야 한다.

IV. 미래형 유보통합: 돌봄중심교육과정

□ 돌봄통합과 돌봄중심통합교육과정

- 돌봄이 학교교육과정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말함
- 돌봄중심통합교육과정은 2가지 축으로 이해할 수 있음
 - 1) 양육이 필요한 돌봄의 교육(돌봄통합)
- ‘시간’과 ‘유형’의 문제로 학교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형의 다양화와 관련이 있음. 이는 양육을 가장 필요로 하는 영아기, 유아기, 그리고 초등학교 로 구분하여 적절한 돌봄체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함.
- 2) 인식론적 돌봄이 필요한 교육과정 (돌봄중심통합교육과정)³⁾
- 제2유형 및 제3유형과 함께 제4유형의 돌봄이 학교 교육과정 설계에 포함이 되어야 함.
- ‘내용(contents)의 문제로 학교교육과정 전체를 돌봄인식론적으로 재개념화 하는 관점이 필요하며 학교교육과정에서 인식론적 돌봄을 강화해 나가는 것임. 이는 교육과정에서 돌봄이 교육과 분리되지 않는 접근으로 학교교육에서 학습자의 인식론적 특성, 즉 돌봄(관계와 관심, 엄함)으로 세계를 인식하는 학습자의 인식의 특성을 교육에 반영하여 함.
- 이는 교육과 분리된 활동과 프로그램 중심의 돌봄교육이 아니라 교육과정에서 방법론으로서 인식론적돌봄을 더 강조해 함을 말함.
- 인식론적 돌봄의 재개념화는 현재 유보통합이나 초등돌봄교육에서 학교내와 학교밖의 논쟁을 보다 학교책임과 교육과돌봄통합의 근간으로 활용 할 수 있음을 제안 함.

□ 돌봄통합과 돌봄중심통합교육과정 운영 현황

3) 돌봄통합교육과정(돌봄중심교육과정)은 돌봄통합교육이 비교과와 학교밖돌봄까지 포함하는 개념에 기반한다면 돌봄중심통합교육과정은 학교 교육과정에서 학습자의 인식론적돌봄양태가 포함하는 학교교육과정 혁신을 의미하는 표기법으로 제안한다.

<표 6> 연령별 돌봄서비스 유형 및 운영시간

연령	시설/서비스 유형	7:30 ~	9:00 ~	13:00~	17:00~ 19:30	19:30 ~ 24시	24시 ~	주말 및 휴일
0 -12세	아이돌보미	부모의 요구에 따른 시간제 서비스(0세 종일제, 1-12세 시간제)						
0 - 36개월미만	시간제보육	가정양육 영아 대상						
0 - 5세	어린이집	(종일보육)				시간연장제		
					시간연장	야간보육	휴일보육	
3 - 5세	유치원	오전 돌봄	(교육과정)	방과후 과정	저녁/야간 돌봄	서비스 없음		
초등 1-2학년	초등학교	오전 돌봄	(교육과정)	방과후 초등돌봄교실(저녁돌봄시 오후10시)		서비스 없음	서비스 없음	토요일, 휴일, 방학중 운영
초등 3-6학년		오전 돌봄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오후 7시)				
미취학 - 18세미만	지역아동 센터	1일 9-10시간					서비스 없음	
4학년- 중 2학년	청소년방 과 후 아카데미	방과 후 1일 5시간					서비스 없음	

※ 음영이 약한 부분은 어린이집의 종일보육,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시간에 해당함.
 <출처: 정선아 (2017). 영유아기와 초등 학령기 아동 돌봄서비스 강화 및 질 제고 방안: '돌봄'과 '교육'의 통합 관점에서.>

- 위의 표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돌봄지원체제는 매우 잘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전 7:30분 ~ 저녁 7:30분까지 12시간 돌봄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고, 온종일 돌봄과 주말돌봄 등 유형도 다양해 보인다.
-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학교와 지역사회로 돌봄이 양분화 되어 있고, 이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며, 논쟁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다.
- 위의 표에서 학교교육과정이 돌봄을 완전하게 통합하여 운영하는 형태는 현재는 어린이집 모형이 유일하다. 유치원은 교육과정반에서 돌봄이 교육과 통합되어 있으나, 방화후과정반으로 나누어 편성하여 교육과 돌봄이 나누어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앞서 토론회에 근거해 보면 돌봄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가장 희망한다. 교육과 보육을 구분하지 않으며 돌봄통합교육을 하는 유형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
- 한 기관에서 12시간 돌봄을 하는 곳은 어린이집이고, 교육과 보육을 구분하지 않고 종일제 돌봄이 이루어지고 있다. 어린이집의 국가가 필요로 하는 가장 유약한 계층인 어린이를 안고 있는 곳이다. 보육교사들은 간호사만큼 힘들게 국가재난 속에 고단한 노동을 해나가며 가장 장시간 긴급보육을 해나갔다.
- 교육과 보육을 구분하지 않은 돌봄통합교육과정은 '정교사'가 교육과정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돌봄통합교육과정을 담당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 어린이집의 돌봄통합교육과정

- 현재 어린이집은 한명이 담임교사가 종일제 돌봄통합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곳이다. 보

육중심기관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누리과정 운영이후 교육중심기관인 유치원과 격차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 공통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오전과 오후를 한 담임이 담당하여 교사의 노동시간의 문제를 안고 있지만 학습자로서 유아의 입장에서는 돌봄이 통합된 교육과 돌봄이 통합된 교육과정을 모두 운영하는 모형이 될 수 있다.

□ 유치원에서 돌봄통합교육과정

- 유치원은 4-5시간 교육과정 반과 오후 방과후 과정으로 교육과 돌봄을 적절하게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는 곳이다. 이는 학교내 돌봄통합교육의 모형으로 방과후과정의 교육의 질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으며, 어린이집만큼 충분한 돌봄통합교육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 유보통합의 관점에서 어린이집이 실시하는 12시간 돌봄통합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걱정이 있으며, 이는 돌봄의 인식론적 전회를 통해 교육과정전반에 돌봄이 포함된 교육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 유보통합에 따라 돌봄통합교육과 돌봄통합교육과정이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시간과 유형은 논의가 더 필요함.
- 유치원은 교육과정의 특성상 돌봄과 교육이 이상적으로 통합되어 실시되고 있는 모형이며, 누리과정에서 양육형 돌봄과 교육을 분리하지 않고 '놀이' '일상생활' '활동'을 중심으로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사례이나 교사들의 '돌봄의 인식론적 특성'을 더 이해하여 교육과정에 더 녹여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 이러한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 돌봄통합교육과정은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 초등학교 돌봄통합교육과정

- 유아교육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토론에서 초등학교 돌봄교실은 언급하는 것은 논의의 범주를 벗어나는 것만은 아니다. 어린시기의 학교에서의 경험은 유연하게 계속성을 가져야 하며, 현재 교육과정상 '절벽형교육과정'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유보통합과 함께 논의 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초등학교는 '돌봄'의 명칭을 전면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다양한 돌봄교실운영을 위한 노력이 많아지고 있다.

<표 7> 초등학교 돌봄교실에서 활동과 프로그램

<표 III-1> '개인활동' 및 '단체활동' 프로그램 유형 및 내용	
유형	프로그램 내용
개인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봄교실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개인적·자율적으로 초등돌봄상담사, 돌봄봉사인력 등의 자원·관리 하에 행하는 활동 예) 숙제하기, 일기쓰기, 독서하기, 그림그리기, 글쓰기, EBS 시청 등의 다양한 활동 포함
단체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봄교실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외부강사 및 교원에 의해 운영되는 다양한 예체능, 창의성 신장을 위한 특기적성 프로그램 활동 예) 음악출범기, 북아트, 전래놀이, 생활체육, 창의로봇, 악기연주, 재미있는 요리, 연극, 학부모와 함께하는 체험활동, 인성프로젝트, 안전교육 등 • 교과학습 프로그램 운영은 지양하되 학교 내·외의 다양한 시설이나 장소에서 수행 *「즐겁고 신나는 초등돌봄 놀이활동」(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16) 활용

- 초등학교에서 돌봄은 양육(신체적 돌봄)을 전제로 하고 있고, 자기돌봄이 가능한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과 다른 형태의 돌봄통합교육이 가능한 곳이다. 큰 틀에서 초등학교 교내에서 돌봄통합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특성상 돌봄통합교육과정에 대한 인식론적 전회가 가장 필요한 곳이다.
 - 돌봄교실은 교육과정과 분리되어 운영하므로, 비교과활동, 예술문화, 체험활동 등 다양한 활동이 운영되나, 학습자 경험의 인식론적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과 연계방안을 더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
 - 유치원에서 운영되는 누리과정 중심 교육과정은 돌봄이 교육과정과 통합되어 운영하는 형태이므로 초등학교에서 연계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연계의 방식은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단위를 조절하는 것을 제안한다. 현재 교과단위로 편성운영하는 방식에서 학습자의 경험중심으로 편성하는 방식이 있다. 교과는 주제나 놀이 등을 중심으로 통합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고, 유치원과 같이 놀이와 활동을 편성운영의 단위로 전환하여 유초연계를 '돌봄통합교육과정'의 형태로 운영하는 안도 있다.
- 활동과 프로그램으로 구분되는 돌봄교실의 인식론적 전회
- 돌봄은 장시간 제공되는 서비스의 성격이 강하므로 다양한 활동과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다만 교육과정반과 돌봄만을 구분하는 것은 어른들의 인식에 기반한 것으로 학습자의 인식운동에 기반한 것은 아니므로, 진정한 학습자중심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마음이 작동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 이는 단순한 유아교육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학교교육의 미래지향적 가치차원에서 확장 되어야 한다.
- 돌봄통합교육은 유치중등학교 전체 교육과정에서 인간과 사회, 자연, 우주 전체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가치이며, 인간에게 사회적, 관계적 존재로서 공생의 생태학을 체화된 지식으로 익힐 수 있는 매우 의도적 교육과정 전환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기반하여 정책을 추진하기 바란다.
- 돌봄의 인식론은 양육중심 돌봄처럼 학습자의 성장에 따라 시간을 줄이거나 점진적으로 분리해 내기 어려운 학습자 존재의 내부작용의 특성이므로 이를 살리는 교육과정으로 나아가야 한다.
- 미래학교는 돌봄의 인식론을 학교에서 강제로 분리해 내는 결과로 두뇌작용만 하는 기형의 인간을 길러내는 학교의 모습에서 돌봄에 기반한 학습자의 인식에 특성에 더 기울이는 학습자중심 교육과정으로 나아가는 것이어야 한다.
- 돌봄통합교육은 유치연계 절벽교육과정을 이음으로 만들어 주는 돌봄중심교육과정(돌봄통합교육과정)을 나아가야 한다. 돌봄을 교육으로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돌봄을 포함한 교육과정으로 나아갈지에 논의의 방향이 전환될 필요가 있다.
- 이는 현재 추진 중에 있는 2022 교육과정에서 생태전환교육을 유지 강화해 가야 하는 이유이고, 현재 들쭉이는 유보통합의 분열된 이해당사자들을 서로 공생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근간으로 활용하는 것을 제안한다.

참고문헌

- 김광모 (2022). 빈틈없는 노원의 아동 돌봄. 공공정책, 202호.
- 김정은 (2012).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자기돌봄경험에 따른 일상생활경험 및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33(6), 51-69.
- 김파란 (2022). 여성의 삶이 어떻게 바뀔지 상상해보라;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부담을 노동계급의 핵가족이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집단적으로 책임진다면! 현장과광장, 제6호.
- 김선훈 (2015). 초등학교 돌봄서비스의 목적 논의 공공성과 아동 자기결정의 자유에 근거하여. 한국초등교육, 26(4), 515-535.
- 김정숙, 이윤진, 조예운 (2016). 유치원 방과후 과정 효율화 방안 연구 (연구보고 2016-01).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나정, 박창현(2015). Ko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한 유·보통합 정책의 변동과정분석: 1997년부터 2014년까지. 열린유아교육연구, 20(3), 185-213.
- 도남희, 김문정 (2019). 아동 돌봄의 사회·경제적 가치에 대한 인식 제고 방안 (사업보고 2019-04).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박혜경 (2018). 초등돌봄교실의 서비스 질과 돌봄전담사의 교수효능감, 직무만족, 관계몰입이 아동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류연규 (2012). 가족의 돌봄 공백에 대응하는 돌봄의 사회화 정책의 성격 규명. 비판사회정책, 37, 113-153.
- 성태숙 (2021). 정체성을 품어야 할 돌봄의 자리. 교육을 바꾸는 사람들 교육 칼럼, 2021년 7월 14일 게재.
- 송대현(2022). 어린이를 위한 유보통합은 어떠해야 하는가? 어린이를 생각하는 모임 연속토론회.
- 손병돈 (2022). 신자유주의를 넘어 보편적 돌봄사회로; 더 케어 컬렉티브의 『돌봄 선언 상호의존의 정치학』. 기독교사상, 6월호, 185-190.
- 신지현 (2021). 아동돌봄정책의 사회·경제적 성과 퍼지셋 분석을 통한 OECD 국가 비교.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심임숙 (2022). 초등학생 부모의 아동 돌봄공동체 참여 경험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안숙영(2018). 돌봄노동의 여성화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여성학, 34(2), 1-32.
- 양미선, 배운진, 김정민 (2015). 어린이집·유치원의 맞춤형 돌봄서비스 내실화 방안 (연구보고 2015-07).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이가형, 정선아 (2015). '돌봄'의 관점에서 유아교사 삶의 특성. 한국교원교육연구, 32(4), 307-326.
- 이미선, 배지현 (2018). 우리나라 유치원 방과후과정 관련 연구의 동향 분석. 열린유아교육연구, 23(5), 245-267.
- 이순행 (2015). 어린이집에서 영아가 경험하는 돌봄의 의미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정림, 최정원, 최윤경 (2019). 돌봄취약계층 맞춤형 육아지원 방안(V): 아동보호시설 영유아 양육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보고 2019-16).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이정민 (2022). 위기청소년을 위한 '정책적 대안으로서의 가족' 나딩스의 돌봄 윤리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9(7), 1-23.
- 이현재 (2022). 도나 해러웨이의 포스트휴먼 페미니즘과 난잡한 돌봄 공동체. 한국여성철학, 37, 27-60.
- 이희현, 권택환 (2021). 미래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유형별 주요 의제 분석; 2.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 돌봄 지원 체제 확립 (IP2021-03-02). 진천; 한국교육개발원.
- 이희현, 김효정, 최형주, 김은경, 손호성 (2021).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의 성과 및 과제 (현안보고 OR 2021-04). 진천; 한국교육개발원.
- 임미숙 (2016). 학교 밖 돌봄과 학교 내 돌봄 연계의 유형 및 관계자 인식분석. 조선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임부연(2020).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 놀이와 교육내용의 연계성 탐구. 어린이교육비평, 19(2), 5-32.

- 임혜정 (2017). 초등학생의 방과후 돌봄공백이 학교 학습활동적응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장명림, 김성희, 김옥자, 채명숙 (2015). 초등돌봄교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학교중심 실행 방안 연구 (OR2015-04).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정선아 (2017). 영유아기와 초등 학령기 아동 돌봄서비스 강화 및 질 제고 방안; '돌봄'과 '교육'의 통합 관점에서. *어린이교육비평*, 7(2), 39-59.
- 진명숙, 권순지(2022). 초등돌봄노동의 유형과 성격 돌봄전담사와의 심층면담을 중심으로. *담론* 201, 25(1), 147-182.
- 최태호 (2012). 한국의 '방과후교육'정책.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종진, 박균달, 정영교 (2016). 초등돌봄정책의 실태와 나아가야 할 방향. *방과후학교연구*, 3(Davies, B. (2017). 어린이에게 귀 기울이기: '이기'와 '되기'(변윤희·유혜령·윤은주·이경화·이연선·임부연 역). 서울: 창지사. (원전은 2014 출판)(1), 1-16.
- Bergson, H.(2001). 의식에 직접 주어진 것들에 관한 시론[Essai sur les donnees immediates de la conscience]. (최화 역). 서울: 아카넷. (원저는 1889에 출판)
- Bergson, H.(2005). 물질과 기억[Matiere et memoire]. (박종원 역). 서울: 아카넷. (원저는 1896에 출판)
- Murris, K. (2021). 포스트 휴먼 어린이(이연선, 변윤희, 손유진, 신은미, 이경화 역). 서울:살림터.
- Noddings, N.(2013). *Caring: A Relational Approach to Ethics and Moral Education* Univ of California Press.
- Gilligan, C.(2016). *In a Different Voice: Psychological Theory and Women's Development*. Havard Univ Press.
- Sarup, M. (1993). *An introductory guide to post-structuralism and postmodernism*. 정영백 역 (1997). *후기구조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 서울: 서울하우스.
- Sellers, M. (2018). 어린이의 교육과정 되기: 들뢰즈, 테 파리키와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손유진·안효진·유혜령·윤은주·이경화·이연선·이진희·임부연·전가일·한선아 역). 서울: 창지사. (원전은 2013 출판)
- Taguchi, H. L. (2017). 들뢰즈와 내부작용 유아교육: 이론과 실제 구분 넘어서기 (신은미·안효진·유혜령·윤은주·이진희·임부연·전가일·한선아·변윤희 역). 서울: 창지사. (원전은 2010 출판)

토론 1

어린이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교육과 보육

박 선 영(인천동춘초등학교병설유치원 교사)

유보통합에 대한 다양한 의견 안에서 혼란을 겪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어린이를 위한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으로 본 토론에 나섰습니다. 본 발제를 통해 교육과 보육의 언표에 대해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발제자의 ‘인식론적 관점에서의 돌봄’이라는 제안에 깊이 공감하며, 교육과정의 측면에서 ‘모든 어린이를 위한 교육과 보육’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1. 어린이가 경험하는 ‘총체’로서 교육과 보육

누리과정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3~5세 유아를 위한 교육·보육을 통합한 ‘공통과정’입니다. 또한 누리과정은 ‘어린이가 경험하는 ‘총체’로서의 교육과정’이라는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 누리과정은 이미 제4유형의 인식론적 돌봄의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과 보육은 분리할 수 없는 얽힘 안에 있기에, 어린이와 만나는 교사들은 언제나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유아교육과 보육이라는 이분법적 구분은 분명하게 존재해 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유보통합’이라는 말에서 더욱 선명한 선을 긋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정작 어린이들에게는 자신들이 경험하는 것이 교육인지 보육인지 중요하지 않은데도 말입니다.

통합과정이 된 지 10년이 지났고, 경험으로서의 교육과정을 시행하고 있는 지금도 왜 이런 구분이 지어지는 것일까요? (부처관계와 정치적 측면 등 너무나 많은 것이 얽혀있지만) 교육과정 측면에서만 바라보자면 이는 발제자께서 지적하신 대로 학교의 위계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아교육’을 ‘학교’에 보낼 준비과정으로서 바라보는 시각과 함께 ‘공부 잘하는’ 아이를 만들고 싶은 우리나라의 ‘교육열’이 ‘교육’이라는 이름을 견고하게 하였습니다. 이 ‘교육열’은 글밥 많은 교과서를 당장 읽어내야 하는 초등교육부터 시작해 좋은 대학 나와야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담은 입시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발제자께서 언급하신 ‘양육-보육-돌봄-교육’의 위계적 용어가 생긴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구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교육체제가 그대로 지속되는 상황에서 유보통합이 이루어지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학교 교육을 위한 지식을 재생산하는 유아교육기관에서 오랜 시간 아이들을 보육하

면 유보통합이 되는 것일까요? 이렇게 통합된 ‘유아학교’는 어떤 곳이며, 그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어린이는 누구일까요? (혹은 누구여야 하는 걸까요?)

2019 개정 누리과정이 도입된 시기에 현장은 그야말로 혼란이었습니다. 학부모, 유아교육과 보육 관련 종사자 모두 ‘놀이’에 대한 이미지가 다른 탓에 많은 목소리들이 서로 엉켜 이 놀이가 맞냐 저 놀이가 맞냐를 외쳤습니다. 아이들은 그저 묵묵히 자신의 놀이를 하고 있었을 뿐인데요.

이렇게 복잡한 목소리들로 엉킨 교육과정임에도 저는 이 교육과정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주제’나 ‘가르칠 것’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고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놀이가 뭘까?’라는 질문에서 ‘놀이하는 자’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유보통합에 대한 현 논의는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단, 이 과정은 어린이를 바라볼 수 있는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 5세 조기 입학’이라는 쟁점이 뜨거웠던 당시, 입장이 다른 각자가 모여 함께 어린이를 바라보게 되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위계적인 교육체제 안에서는 유아의 경험을 총체적으로 바라보는 교육과 보육이 어렵습니다. 상위 학교급의 ‘교육’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다시 ‘유아’가 아닌 ‘내용’에 얽힌 채로 이름만 교육과 보육의 통합이 될 뿐입니다. 또한 이 체제 안에서 ‘돌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조심스럽습니다. 초등 돌봄교실에서 표면적인 돌봄의 언표만을 따 그와 비슷한 유형으로 교육과 보육의 시간과 형태를 탈바꿈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입니다. 이러한 오해를 피하고 ‘돌봄’의 교육과정이 실천되기 위해서는 교육의 위계를 허물고 어린이와 교사, 어린이와 기관, 어린이와 사회의 새로운 관계 맺기를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지식이 아닌 어린이의 삶, 그 경험의 총체를 교육과정으로 인정해주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발제자의 언급대로 유초중고가 하나의 어린이를 기르는 관점에서 그 어린이가 살아갈 세계를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뉴질랜드의 국가수준 유아교육과정인 테파키리 교육과정과 학교교육과정의 연계 과정은 이러한 방향성을 보여줍니다.

〈표 1〉 유아교육 학습성향과 의무학교교육 핵심역량 간 연계 가능한 자원

테 파키리 영역	추구하는 학습성향	핵심역량	매개자원
Mana whenua/ 소속(belonging)	· 관심 가지기 · 참여하기	· 참여하기와 기여하기	· 학습자의 지식 편드와 연계하고 자아와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모범 적으로 보여주는 공동체
Mana atua/ 행복(well-being)	· 관여하기 · 집중 및 몰입하기	· 자기 관리하기	· 교사와 학습자가 조율하고 적응 할 수 있는 지역 자원과 일상 · 집중하여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의 제공

〈출처: Moss, P. (2017). 유아교육과 의무교육: 관계를 재계념화하기(정선아·윤은주·이진희 역). 서울: 창지사. (원전은 2013 출판).〉

위의 표에서 ‘매개자원’은 유아교육과 학교교육의 연속성을 위하여 테 파키리의 ‘영역’과 학교교육의 ‘핵심역량’을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매개’자원이라는 말을 통해 두 교육과정 간의 위계가 성립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테 파키리 교육과정은 개발과정에서 모든 지원 기관 및 단체와의 광범위한 협의를 통해 여러 유아교육 관계 집단의 관점이 어우러진 산물이라고 합니다. 유보통합은 표면적인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이 아니라 테 파키리와 같이 모든 관계 집단이 어린이를 생각하는 ‘관계의 산물’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통합된 유아학교는 어린이와 가정과 사회 등 유아가 경험하는 총체가 ‘동등한 관계로서’, ‘동등한 책임’을 가지고 만나는 장(場)이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살아갈 어린이는 동일하고 고정된 교육이나 보육을 받아야 하는 정형화된 이미지의 어린이가 아니라 어떤 이미지도 없는 그저 어린이 자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보통합에 있어 새로운 교육과정을 구상하기보다는 그 운영 형태와 운영 주체를 둘러싼 쟁점의 해결을 통해 ‘모든 어린이를 위한 교육과정’이 제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모든 어린이에게 동등한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각자의 경험이 교육과정으로 실행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교육과정은 오롯이 어린이를 위한 과정이어야 합니다.

이 시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교육과정을 실천할 교사입니다. 교육과정을 잘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사 양성체제와 사후 교육은 매우 중요하며,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와 배움이 없이 무조건적 교사 통합을 한다면 돌봄의 교육과정 실천에 많은 어려움을 야기할 것이며, 그 피해는 온전히 어린이에게 갈 것입니다. 또한 교사의 근무 여건이나 지원체계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지 않은 채 유보통합에 대한 모든 책임과 업무를 현장으로 떠넘긴다면 결국 현장은 ‘냉담이라는 질병’⁴⁾을 앓을 수 밖에 없습니다.

2. 학교-가정-사회 모두가 어린이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교육과정

만 5세 취학의무라는 사회적 이슈를 통해 유아교육 관련 기관 종사자들과 학부모들은 한 목소리로 ‘어린이는 지금 당장 놀아야 한다.’를 외쳤습니다. 우리는 학교에 일찍 취학하는 것이 유아의 발달에 적합하지 않음에 대해 주장하였고, 조기 취학의 대안으로 8시까지 학교에서 온종일 돌봄을 하겠다는 정책을 내었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의 이유로 반대하였습니다. 아이들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준 어른들의 따뜻한 보살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유보통합에 있어서 그 주장은 차가운 의문문으로 돌아옵니다.

‘어린이들은 지금 당장 어디서 어떻게 놀아야 합니까?’

4) Suransky(2008)는 그의 저서「아동기의 실종」에서 수많은 어린이집이 교사진의 교대 근무와 과밀학급으로 심리적으로 무관심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보육실태를 일컬어 ‘냉담이라는 질병’이라 부르며, 아동이 깨어있는 시간 중 11시간이나 12시간 동안을 무관심한 양육자의 보호 아래 보내게 된다면 이러한 무관심으로 아동이 피해 받게 된다는 Kagan의 연구에 대해 언급하였다.

유보통합이 ‘모든 어린이’에게 평등한 교육을 제공한다는 명목하에 학교가 아닌 유아 교육·보육기관에서 12시간을 놀게 하자는 뜻은 아니겠지요? ‘모든 어린이를 위하여’ 유보통합이 필요한 것인지, 12시간 보육이 가능한 유보통합을 위하여 ‘어린이를 위한다.’는 문구가 필요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영유아의 불평등 해소라는 문제를 무조건적인 평등의 관점에서 해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도화’된 시설 안에서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을 ‘수용’해야 하는지를 논의하는 유보통합은 어린이를 둘러싼 성인들의 만족에 치중되어 있으며, 어린이에 대한 어떠한 보살핌도 없는 어린이를 소외시키는 정책이 될 것 입니다. 이는 모든 어린이를 같은 시간과 같은 공간에 가두어 같은 것을 가르치는 것은 모든 어린이를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브론펜브레너는 정상적으로 발달하기 위해 아동은 한 사람 또는 그 이상의 조건 없이 사랑을 주는 성인의 보살핌을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유보통합의 논의에 있어 유아에게 어떤 보살핌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는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발제자가 제안한 제4유형의 인식론적 돌봄으로의 전환에 찬성합니다. 어린이는 자신을 둘러싼 세상과 내부작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린이가 내부작용하는 세계는 어떤 곳이어야 할까요? 어린이를 둘러싼 사람들은 이 어린이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린이는 가정 안에서 따뜻한 사랑을, 기관 안에서 자신이 알아가는 세계에 대한 끊임 없는 탐구를, 사회 안에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사뿐 아니라 어린이에 얽힌 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어린이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돌봄의 교육과정을 실천해야 합니다. 국가에서는 재정적 지원을 통해 기업에서 육아휴직 등 육아를 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근로의 연속성을 보장하여 마음 편히 육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펼쳐야 합니다. 가정에서 육아를 도울 수 있는 사회적 제도 역시 필요합니다. 학교는 어린이 양육에 관한 이 모든 것을 모두 수용하는 ‘수용시설’이 아니라 어린이를 둘러싼 사회의 지원체계가 얽힌 가운데 어린이를 위한 교육과정을 실천하는 장(場)이 되어야 합니다.

인식론적 돌봄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가정, 학교, 협력 기관, 사회, 정책 등 어린이를 둘러싼 모든 것은 학교입니다. 유보통합의 과정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에 국한된 것이 아닌 아이들이 마음 놓고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가정과 사회의 지원체계를 만드는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차 토론에서 발제자는 ‘지금, 당장’ 유보통합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보통합은 아주 복잡하고 민감한 여러 가지 사안들로 뒤덮여 언제 이루어질지 그 시기를 단정하기 어렵고 자칫 선부른 정책 결정을 내려 현장의 혼란이 일까 두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로서 저에게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지금 저와 함께 하는 어린이들의 행복을 위하여 고민하고, 그들에 대한 책임을 다하여 공통 교육과정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공통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모든 교사가 ‘지금, 당장’ 이를 실천한다면 이보다 더 좋은 유보통합은 없을 것 입니다. 그러나 이 실천에

는 반드시 이 교육과정에 걸쳐있는 유아를 둘러싼 모든 사회의 책임과 연대가 필요합니다.

발제문을 읽고, 토론을 준비하면서 어린이가 이 사회 속에서 정말 행복한지에 대해 교사로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어린이들이 각자의 삶을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어린이를 위한 교육과정은 모두 똑같은 교육과정이 아니라 그들 각자가 가진 그들만의 교육과정을 인정하고 지지해 주는 교육과정이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짧은 생각으로 토론을 마칩니다.

토론 2

돌봄 중심 교육과정 방향 모색에 대한 토론

권영화(전국장애아동보육제공기관협의회 회장)

1. 시작하는 말

지체장애가 의심되는 자녀를 둔 지방의 한 부모님께서 아이를 데리고 이 병원, 저 병원을 전전하다가 서울의 한 종합병원 낮병동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큰 기대를 갖고 그 병원에서 2년 넘게 치료를 받았지만, 아이의 상태는 입원 당시의 상태에서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담당의사가 조심스레 퇴원을 권유했습니다. 아직 아이가 걷기는 커녕 서지도 못하는데... 그 아이 부모는 답답한 나머지 의사에게 그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담당의사는 “의학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했으나 어떻게 된 일인지 치료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다른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병원에 계속 있는 것은 무의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라고 했습니다. 병원의 치료에 큰 기대를 걸었던 그 아이 부모는 할 수 없이 다시 지방으로 내려와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일반 영유아의 부모님들과는 달리 많은 장애영유아 부모님들께서는 병원과 치료실을 전전하면서 ‘경제적 과부담’ ‘발달의 골든타임 상실’과 더불어 ‘심리적 좌절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난 2014년, 2015년, 2017년 전국장애아동보육제공기관협의회에서는 장애영유아의 부모들과 보육교직원들(원장, 교사, 치료사)를 대상으로 장애영유아 유보통합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대다수의 부모들이 장애영유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보육과 재활치료를 병행하는 원스톱 지원체제, 교사의 자격 체계 및 경력 관리, 교육·보육 교직원의 호봉체계의 일원화를 비롯하여 장애영유아 교육과정 통합 개발, 장애영유아 진단·평가·배치 체계 및 행정적 지원 및 관리 체계의 일원화 등과 같은 문제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상당한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도 유아교육과 보육체제가 분리된 채 유치원과 어린이

집에 재원 중인 장애영유아들의 지원 격차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어린이집을 선택하는 만 3~5세 장애유아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의무교육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의무교육관련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때, 발제자께서 ‘돌봄에 기반한 유보통합’을 제안해 주시으로써 담보상태에 놓여있는 유보통합 문제를 새로운 방향에서 접근해 볼 수도 있겠다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유보통합에 대한 논의는 주로 시스템과 정책적 통합에 중점을 두었으나, 더 나아가 유보통합 이후의 콘텐츠 통합 문제까지도 논의되어야 한다는 발제자의 제안은 유보통합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심도있게 논의될 필요가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1. 장애영유아의 권리 보장을 위해 우선 해결되어야 할 유보통합 과제

- 지금까지 유보통합이 담보 상태에 놓이게 된 이유 중 하나가 혹시 아이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의 보장보다는 어른들의 관점(행정편의주의, 집단이기주의, 편견 등)이 우선되었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구보다도 수혜 당사자인 장애영유아의 권리 보장을 위해 다음과 같은 통합들이 우선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관리부처 및 행정체계 통합

장애아통합유치원·유아특수학교·특수학교 유치부→교육과학기술부

장애아통합어린이집·장애아전문어린이집→보건복지부

※ 일반영유아 유아교육기관은 유치원, 어린이집으로 양분되어 있지만, 장애영유아 유아교육기관은 장애아통합유치원·어린이집, 유아특수학교·장애아전문어린이집, 특수학교 유치부 등 다양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2) 법적 근거 통합

장애아통합유치원·유아특수학교·특수학교 유치부→유아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아통합어린이집·장애아전문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의 법, 장애아동복지지원법.

※ 일반영유아 유아교육기관보다 장애영유아 유아교육기관과 관련된 법이 더 다양합니다.

※ 따라서, 장애영유아 교육-보육기관의 주관 부처 및 법적 근거 등의 차이에 따라 대상 아동, 운영시간, 교사자격 및 보수, 전달체계 및 재정지원 구조, 시설 기준, 관리·감독, 이용 비용 등에서 차이가 큽니다.

3) 재정(재원)통합

장애아통합유치원·유아특수학교·특수학교 유치부→교육과학기술부, 각 시도 교육청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유아학비 및 운영비, 인건비 등 지원

장애아통합어린이집·장애아전문어린이집→보건복지부, 각 시군구 보육료 지원 및 국고보조사업의 형태로 인건비, 운영비 등 지원

4) 장애영유아 교육-보육 프로그램 통합

장애아통합유치원·유아특수학교·특수학교 유치부→ 만3세~만5세 누리과정, 유치원교육과정에 기초한 특수교육프로그램(IEP)

장애아통합어린이집·장애아전문어린이집→만3세~만5세 누리과정, 표준보육과정에 기초한 특수교육프로그램(IEP)

※ 장애영유아를 위한 유보통합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장애영유아가 지닌 다양한 발달 특성을 고려하고 장애영유아 보육-특수교육과정 운영형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혼합하여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과제가 선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5) 서비스 기능 통합

장애아통합유치원·유아특수학교·특수학교 유치부→유아교육, 특수교육, 방과후프로그램 별도의 재활치료 지원

장애아통합어린이집·장애아전문어린이집→보육, 특수보육(개별화교육프로그램), 재활치료(어린이집 소속 치료사), 장애아 방과후프로그램. 지원

※ 일반영유아 유아교육기관보다 장애영유아 유아교육기관에서 더 다양한 서비스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6) 교사 자격 통합

장애아통합유치원·유아특수학교·특수학교 유치부→특수학교(유치원)정교사 1, 2급 자격

장애아통합어린이집·장애아전문어린이집→장애영유아보육교사, 보건복지부인정특수교사, 특수학교(유치원)정교사 1, 2급 자격, 언어·물리·작업·심리 등 치료사 자격

※ 일반영유아 유아교육기관보다 장애영유아 유아교육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직원들의 자격 유형이 더 다양합니다.

7) 시설기준 통합

장애아통합유치원·유아특수학교·특수학교 유치부→교육과학기술부 산하 각 지역교육청의 설치

기준에 따름

장애아통합어린이집·장애아전문어린이집→보건복지부 설치 기준에 따름

※ 일반영유아 1인당 보육실 면적은 2.64㎡이고, 장애영유아 1인당 보육실 면적 : 6.6㎡로서 영유아 1인당 보육실 면적 기준이 다릅니다.

2. 발제자의 제안에 대한 의견

-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보육은 “어린이를 보호하고 기르”므로, 양육은 “아이를 잘 자라도록 기르고 보살핌”으로, 돌봄은 “건강 여부를 막론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거나 증진하고 건강의 회복을 돕는 행위 또는 보살핌, 보호”로 설명하고 있어서 세가지 용어의 의미에 있어서 유사점이 많고 초등학교에서의 ‘돌봄’은 방과후에 교육과 보육의 기능을 담당하는 ‘돌봄교실’이라는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일반적으로 ‘돌봄’을 ‘신체적 돌봄’으로 제한해서 생각하기가 쉬운데 발제자께서 네 가지 유형의 돌봄, 즉 신체적 돌봄, 정서적 돌봄, 정치적 돌봄, 인식론적 돌봄을 제안하심으로써 돌봄에 대한 제한적 인식을 바꾸신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 이전의 유보통합논의가 시스템과 정책적 통합‘이었다면 이어지는 통합 논의는 ‘콘텐츠 통합’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발제자의 주장에 공감하며 ‘돌봄’이라는 콘텐츠 통합의 제안은 유보통합 이후 나타날 수 있는 ‘갈등과 혼선’을 예방하고 진정한 유보통합의 성공을 위해 논의해 볼 필요가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또한 발제자께서 유보통합의 관점에서 어린이집이 실시하는 12시간 돌봄통합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걱정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시면서, 이는 돌봄의 인식론적 전회를 통해 교육과정 전반에 돌봄이 포함된 교육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는 발제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 이유는 앞으로 이러한 논의들이 보다 구체화된다면 유보통합에 대한 이해당사자들의 이견 조율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 아울러 “교육대상”의 차원을 넘어 “예방과 재활” “장애 극복”에 대한 지원 요구를 가진 장애영유아의 돌봄 문제를 포괄하는 ‘콘텐츠 통합’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져 신체적 돌봄, 정서적 돌봄, 정치적 돌봄, 인식론적 돌봄 등 네 가지 유형 이외에 장애유무와

상관없이 누구나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제5유형인 '보편적 돌봄'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맺는 말

우리나라는 현재 장애의 조기발견과 조기교육 문제를 공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조성해 놓았습니다.

이처럼 장애의 조기발견과 조기교육 문제를 법으로 규정하게 된 것은 가장 취약한 계층인 장애영유아가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절한 치료와 보육·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장애영유아의 보육·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스템과 정책적 통합을 통해 선정, 배치 단계부터 교육 및 행·재정적 지원에 이르기까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장애영유아들에 대한 차별적 지원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유보통합 이후 일반 영유아뿐만 아니라 장애영유아를 위한 '콘텐츠 통합'에 관한 연구와 논의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끝으로 강조하고 싶은 말은 유보통합은 어른들의 입장이 아닌 아이의 권리 보장과 아이가 받을 혜택을 우선시하여 성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고자료

- 권영화(2014). 장애영유아 유·보통합의 방향성 재고 및 개선점 탐색. 2014 한국특수교육학회총계 학술대회 자료집. 433-451.
- 권영화(2018). 의무교육의 정상화를 통한 장애유아 보육·교육 차별 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25-29.
- 권영화(2019). 장애영유아 정책 개선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63-70.
- 교육부(2021).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법률 제18637호 일부개정)
-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대한민국 시민사회 보고서(2022). 장애아동의 교육권, 138-142

토론 3

보육과 교육이라는 이분법을 넘어설 수 있을까?

김 태 정(마을교육공동체포럼 정책위원장)

발제자의 [유보통합에서 모든 어린이를 위한 교육·보육의 방향은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발표문은 유·통합 논의가 자칫 기능적인 혹은 행정적이고 절차적인 논의로 흐를 수 있는 우려를 고여할 때 매우 시의 적절한 것이라 판단된다. 동시에 이 발표문은 ‘돌봄’에 대한 이해를 확장함으로써 보육과 교육이라는 이분법적 접근을 극복해야 한다는 제안을 담고 있다고 판단된다.

유·보 통합이 그동안 이루어지지 못한 원인은 관료(부처)들간의 헤게모니를 둘러싼 이해관계로 표상되는 그 이면에는 ‘아동돌봄’이 공적영역이 아니라 사적영역으로 방치되어왔고, 이를 통해 ‘아동돌봄’이 이윤추구의 도구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판단된다. 때문에 ‘아동돌봄’을 보편적 권리로 설정하고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할 영역으로 설정하는 것에 대한 공론화와 사회적합의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다람쥐 쳇바퀴 돌 듯이,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힘겨루기가 반복되는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측면에서 발제문에서 특히, 아동돌봄에 대한 인식론적 전회에 대한 제안은 매우 심도깊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1) 신체돌봄 2) 정서적돌봄 3) 정치적돌봄 4) 인식론적돌봄으로 구분하거나 돌봄의 영역을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임에도, 돌봄이라고 하면 신체돌봄으로만 제한하는 사고방식에 대해서 경종을 울린다는 점에서 매우 유의미한 제안이라고 할 수 있다.

돌봄을 신체돌봄 정도로 사고하는 배경에는 발제자가 지적하듯이 양육, 보육, 돌봄, 교육이라는 단어를 위계적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내재한다. 즉 교육이 가장 높은 위치이고 돌봄이나, 보육은 그 아래에 위치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전문가주의와 능력주의가 작동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시험능력주의가 작동한다. 유치원 교사들은 자신들이 어린이집 교사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게 작동한다. 마치 정규직들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요구에 반대하는 논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 동일한 노동을 하는데 차별을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그런데 자격증을 가진 사람의 노동과 자격증을 가지지 않는 사람의 노동은 질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한다면 과연 그것이 정의로운 주장인가? 자격증을 가지지 못했으나, 오랜 세월 숙련을 통해 기능적인 면에서 자격증을 가진 사람과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데 차이가 없음에도 차별을 하는 것은 정당한 행위인가?

교육과 돌봄을 분리하여 이해하는 것에는 아동발달에 대한 몰이해도 한 몫을 하는 것 같다. 아동의 발달단계를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학령기 이전의 아동들에게 보육, 돌봄, 교육은 기계적으로 분리되지 않는다. 초등저학년의 경우에도 이는 마찬가지이다. 만일 교육은 지식을 전달하는 행위, 혹은 교수-학습을 하는 것이기에 보육, 돌봄보다는 상위의 실천행위라고 이해한다면 그것은 발달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발달은 지능의 발달만이 아니라 지능과 정서의 통합적 발달이다. 인간은 기계가 아니다. 인간은 육체를 가진 존재이며, 감정을 가진 존재이다. 가르치는 행위 안에는 지식과 기능의 전달과 숙달만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감정, 정서를 가진 인간 간의 교감이 들어있다. 결국 교육과 돌봄을 분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돌본다. 이 둘은 같이 진행된다.

발제자는 인식론적돌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아이들의 경험세계를 존중하는 것에 대해 언급한바 있다. 경험에 기반하여 세계를 알아가는 것에서 '~에 대한 관심'과 이를 통한 아동을 둘러싼 사물과의 관계맺음과 돌봄의 행위를 강조한바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돌봄통합교육과정' 제안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학령기전 아동을 위한 교육과정이 일상적인 경험들이 강조되어야 하는 것, 놀이활동을 통해 대상세계를 느끼고(감각하고), 지각하고, 기억하는 과정들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때문에 이 시기의 '돌봄통합교육과정'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특정한 인위적 공간안에서의 짜여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현재와 같은 방식과는 다른 것이어야 할 것이다. 그런측면에서 마을연계교육과정은 유아교육단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일상적 경험의 축적없이 과학적 사고는 형성되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현재 우리는 아동을 '안전하게 돌본다'라는 미명하에 사실은 어른들이 '안전하게' 혹은 '안위를 위해' 아동들을 가두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왜 코르차이 '아동의 죽음권리'를 주장했을까에 대해서도 돌아보아야 한다.

또한 아동을 위한 유·보통합이 아니라 어른들을 위한 유·보통합으로 작금의 논의와 향후 정책 실현과정이 왜곡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아동의 발달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토론 4

통합으로 가는 험란한 길

장 하 나(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교육부공고제2020-178호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교육부장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교별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특색 있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및 초등돌봄교실 운영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정적인 방과후학교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 근거 마련(안 제23조의2 신설)

- 1) 방과후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 2)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 수립 의무 부과
- 3) 방과후학교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방과후학교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방과후돌봄정책과(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inkandaejinak@mail.go.kr, kem795@korea.kr
 - 팩스 : 044-203-69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방과후돌봄정책과(전화 : 044-203-64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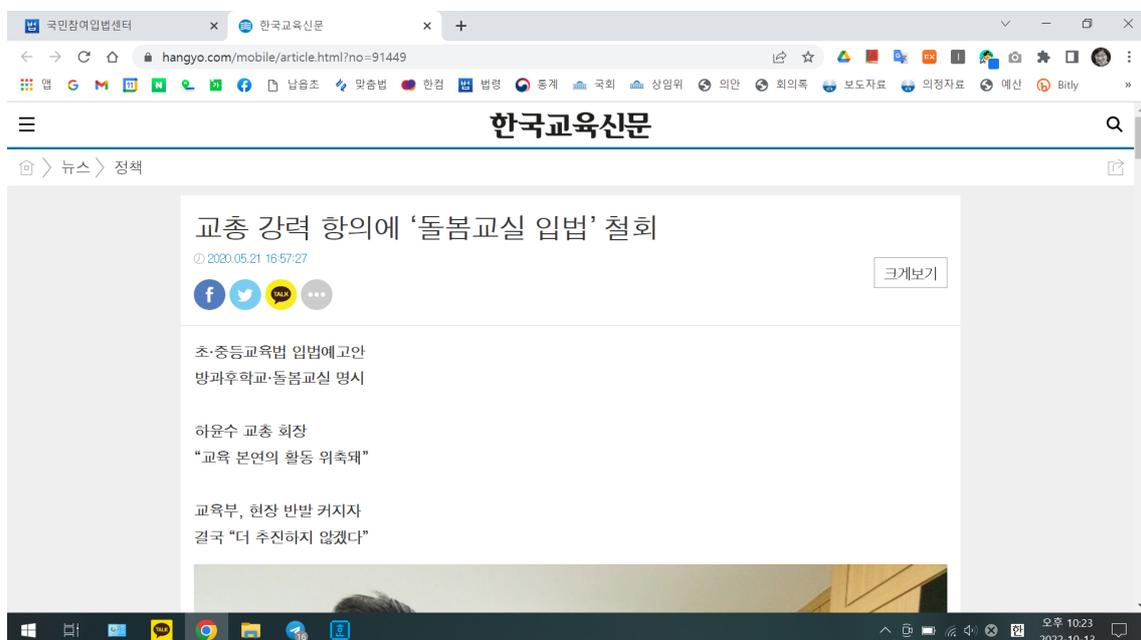
2020년 5월 교육부는 초등돌봄교실 등 방과후학교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추진에 앞서 입법예고를 실시한 바 있다.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58986>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김한정 국회의원이 대표발의 하였으나 20대 국회 임기종료가 임박하여 사실상 무산된 상황이었다.

이에 코로나19로 돌봄 대란을 겪고 있는 전국 140만 초등 저학년 학생과 그 가족들은 교육부의 초등돌봄 법제화 재추진을 기쁜 마음으로 지켜봤다.

그러나 입법예고 3일만인 5월 21일, 교육부는 각급 교원단체의 압박에 못 이겨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추진을 사실상 철회했다. <http://www.hangyo.com/mobile/article.html?no=91449>



지난 19일 교육부 입법예고 직후 교사노동조합연맹,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원단체들은 “돌봄은 학교와 교사의 역할이 아니라는 이유”로 입법 저지 운동에 돌입했고, 교육부는 교원단체들의 압력에 굴복해 입법예고 의견청취기일(5.19. ~

6.8.)도 채우지 않고 단 3일 만에 철회한 것이다.

대한민국 초등교사들이 스스로 교사이되 교육자는 아니라고 선언했다! 그렇다면 교사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정된 직장이라는 것 외에, 학원 강사와 다를 게 무엇인가? 학원 강사보다 잘 가르친다는 평가를 받고 있긴 한가?

아래는 전북교사노동조합의 입법 반대 서명 페이지이다.

<https://form.office.naver.com/form/responseView.cmd?formkey=NDI2ZjBIMjItNWQ0ZC00M2JmLWE5ZjAtYWU4MmM1Yjk0OGJj&sourceId=urlshare>

방과후학교와 초등돌봄교실의 법제화의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 육법 개정안 반대 서명

교육부는 2020년 5월 19일 방과후학교와 초중등교육법 운영의 책임을 학교와 교육청 소관으로 명문화한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동안 각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는 보육의 영역으로 교육을 담당하는 학교에서 운영을 하는 법률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법률 개정안을 통해 교육부는 각 학교에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의 운영 주체를 학교와 교육청으로 설정하고자 합니다.

이미 학교는 정부의 많은 부처에서 떠넘기는 일들을 받아 각종 업무로 교육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방과후와 돌봄이 법제화가 될 경우, 학교는 보육에 대한 업무를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보육은 교육을 실현하는 학교에서 떠 안아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보육은 보육을 담당하는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각 지자체가 담당해야 할 일입니다.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학교, 선생님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서명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의 소중한 서명은 법률안에 반대하는 자료로 교육부에 전달하겠습니다.

교육부 입법 발의 내용 링크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58986?fbclid=IwAR1PhDoMaR70gpPdE-SkVV3mmVaoSBMBLpdS4zsWhOiV91fJRv2sMwWPfJc>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전북교사노동회는 언제나 선생님들의 입장에서 선생님들을 위해 행동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전북교사노동조합

응답 기간 : 2020.05.20(수) - 2020.06.03(수)

응답할 수 있는 기간이 아닙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교사를 ‘아이돌보미’의 도우미로 만들지 말라”고 대놓고 주장한다. 전인교육은 고어이자 사어인가? 직업에 귀천이 있다는 말인가? 여전히 돌봄이 필요한 초등 저학년 학생의 행복과 안전을 도모하는 일은 교육기관과 교육자의 중대 과업이자 초목표다. 교사들 몇대

로 돌봄을 아이돌보미(비정규직 돌봄전담사)의 고유 업무로 규정하고, 돌봄 업무에 조력하는 것이 마치 정규직 교사의 수치인양 말하는 교사노조는 '노동단체'로서 최소한의 자격도 없다.

방과후학교-돌봄의 학교사무
입법안 절대 반대

다함께 만드는 교육
교사노동조합연맹

1. 교육·학에 활동이 아닌 아이돌봄 지원 업무를 학교 업무로 해선 안 된다.
2. 아이돌봄은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여성가족부와 지자체로 이관해야 한다.
3. 교육부는 문어발식 사업 확장 중단하고, 본연 업무 교육에 충실해야 한다.
4. 교육부는 교사를 '아이돌보미'의 도우미로 만들지 말라.

"속보"

교육부 방과후학교 (돌봄) 법제화 추진 중단 결정

아이들의 안전한 양육은 국가와 가정의, 보육은 지역사회가 교육은 학교가 담당해야 합니다.

조합원은 법안 폐기될 때까지 반대의견을 제출합니다

5월 15일
전교조, 교원단체 간담회에서 돌봄문제 해결 로드맵 요구하자
교육부장관은 사회관계장관회의 통해 지자체로 돌봄 이관 추진 말함

5월 20~21일
전교조 본부와 지부는 잇따른 성명서 발표하며 방과후학교(돌봄) 법제화 추진 중단 요구

5월 21일 12시
위원장, 교육부 장관에게 강력 항의 및 폐기 요구
장관은 교원단체 의견 수렴하여 새롭게 추진하겠다고 답변

5월 21일 오후
교육부 차원에서는 방과후학교(돌봄) 법제화 추진을 중단하기로 결정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유엔아동권리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의 네 가지 기본원칙 중 하나가 '아동 최선의 이익(Devotion to Best Interests of the Child)'이다.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학교(교육기관)이 언제부터 교(敎)만 하고, 육(育)은 하지 않았는지.
교사(교육자)가 언제부터 교(敎)만 하고, 육(育)은 하지 않았는지.
그들의 주장이 사뭇 생소하지만, 교사들이 그렇게 믿고 싶다고 치자.
그러나 '아동 최선의 이익'에 따라 그들의 알량한 믿음은 아이들의 행복과 안전의 먼 후순위에 지나지 않는다.

방과 후에 학교에 남는 아이들이 불법체류자처럼 인식하는 일부 교사들에게 묻고 싶다. 학교는 교사들의 것인가? 교사를 위해 학교가 있고, 학생이 있다고 생각하나? 학생이 있어서 학교가 있고, 교사가 있는 것이다. 납세자들은 교사 처우를 위해 공교육 정책을 지지하고 교육재정 강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 아동들의 보편적 교육권을 보장하고 그 질을 날로 제고하기 바라기에 세금을 내고 교육복지 강화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것은 일부 맞벌이 학부모의 요구가 아니라, 공교육의 본질이다. 학교를 좋은 일터로만 생각하는 교사들의 집단 이기주의 앞에 탄식이 멈추지 않는다.

정부, 교육부와 교육청이 교원단체의 입김에 휘둘리는 이유는 조직된 '표' 때문이다. 정치하는엄

마들이라는 양육자 단체의 활동가로서 학생·학부모가 교원단체만큼의 조직력과 정치력 영향력을 발휘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안다. 2018년 스쿨미투 사태 이후 스쿨미투 처리현황을 공개(가해자 실명과 감사보고서 원본 제외)하라는 소송에서 세 번 모두 승소했지만, 교육청은 여전히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고 가해자 보호에 급급하고 교육부는 나 몰라라 하고 있다.

교육감 선거를 따로 하고, 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와 완전히 단절된 교육 행정에 의문을 제기한다. 교육청을 지방정부 산하 교육국으로 재편하는 것이, 교육 정책에 대한 교원단체의 비대한 영향력을 정상화하는 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학교 안에서 교육과 복지 서비스가 상존하고, 교사의 사유지로 전락하여 시민에게 배타적인 학교 공간을 다시 지역사회의 품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 학생 자신조차도 방과 후에 운동장에서 놀지 못하는 비정상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다. 안전상의 이유로, 학교장이 만일의 사고 책임을 지기 싫어서 학생을 학교 밖으로 내몰고 있다.

학생을 사랑하고 교육자의 본분을 지키는 좋은 교사들에게 상처를 주기 싫지만, 교사 개개인이 아닌 교원단체의 교육복지/학교돌봄에 대한 태도에 대해 지적하기 위해 인용이 불가피했음을 양해 바란다.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유보통합이 아닌 돌봄통합으로 전환하자는 주장에 반가움을 감추기 힘들다. 이 길에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 교육의 현실은 어떤지 알리며, 뜻과 힘을 모으자는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토론 5

돌봄 중심의 통합교육을 위한 존재-인식론적 제안

임민정(경북대학교)

모든 어린이를 위한 교육과 보육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기관 통합을 넘어 교육의 본질에 내재된 ‘돌봄’의 인식론을 토대로 통합된 교육(과정)을 지향해야한다고 제안해주신 임부연 교수님의 발제에 감사드립니다. 발제문의 논지와 방향성에 공감하면서, 예비영유아교사를 양성하는 교사교육자의 입장에서 추가하고 싶은 생각을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유보통합 논의에 담긴 인식론적 위계

발제문을 읽으면서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은 유보통합 논의에서 부상하고 있는 연령별 분리 통합 쟁점이었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논의에서 연령 발달에 따라 「양육-보육-돌봄-교육」 위계가 형성되고 있다는 발제문의 지적은 학계와 현장에 팽배한 인식론적 위계를 예리하게 포착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교육으로부터 양육과 보호를 분리해내고 신체적 양육과 정서적 돌봄을 교수학습 중심의 교육과 구별하는 연령별 유보분리 주장은 신체보다 정신, 감정보다 사고를 우위에 두는 인식론적 위계와 맞닿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인식론적 위계는 양육과 돌봄, 교육이 혼재된 영유아기 어린이들의 경험과 삶을 지금 여기 실체가 아닌, 성인과 대조되는 결손된(deficit) 관점으로 바라보도록 만듭니다(Murris, 2016/2021). 또한 유보통합 정책 논의에서 현장의 실제적 수행이 제도체계 쟁점에 비해 주목되지 않도록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유보통합 논의에 담긴 인식론적 위계로 인해 교사전문성 인식에서 「영아-유아-초등-중등-대학」으로 이어지는 연령별 서열화가 더욱 공고화되는 것은 아닐지 우려됩니다. 연령별 유보분리 주장은 교사양성대학에서 배출되는 학생들의 보육교사 진로 진입을 낮추는 방해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비수도권 국립대학 아동학부에 근무하는 교사교육자로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안타깝게도 많은 학생들이 보육보다는 유아교육, 유아교육보다는 아동상담을 일종의 심화된 학습과정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교육과 돌봄의 통합을 강조하는 임부연 교수님의 발제문은 영유아를 위한 보육과 교육뿐 아니라 영유아교사직의 비전과 전문성을 명료화하는 개념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저출생에 따른 영유아수 감소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관련학과 교수로서 돌봄의 인

식론적 전회는 여러모로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었습니다.

존재-인식론적인 돌봄의 내부작용

그동안의 영유아교육과 보육에서 돌봄은 핵심 윤리로 간주되어 왔습니다. 돌봄은 부모를 대신하여 양육과 보호를 제공하는 전통적인 관점과 애정과 배려, 책임, 상호이해 등에 기초한 사유 활동을 내포한 재개념화된 관점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양옥승, 2004). 역사적으로 유아교육은 모성의 가치를 토대로 발전되어온 학문이며, 전통적 관점의 돌봄은 영유아교사를 ‘대리 부모’, 특히 ‘대리 어머니’로 바라보곤 합니다. 이에 비해, 재개념화된 관점은 돌봄과 관계성을 영유아교사의 실천 덕목으로 강조하고, 비판적 성찰을 통해 전문성의 역량으로서 돌봄 윤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한편, 돌봄의 인식론은 돌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전통적 혹은 재개념화된 돌봄에서는 돌봄을 제공하는 주체와 돌봄을 받는 대상이 분리되어 접근되었습니다. 또한 돌봄에 대한 논의들은 주로 돌봄주체의 행위와 신념에 초점을 두고 전개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논의에서 돌봄의 대상이 되는 영유아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거나 관련된 성인들에 의해 대신해서 말해지곤 합니다.

그러나 인식론적 돌봄에서는 관계맺음 안에서 생성되고 변화되는 내부작용으로서의 앎(knowing)에 주목합니다. 이때 내부작용(intra-action)은 내적으로 활성화되는 것으로, 독립된 개체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interaction)과 달리 탐구과정에서 대상과 주체가 분리될 수 없음을 드러내는 용어입니다(Barad, 2007). 곧, 인식론으로서의 돌봄은 돌봄자-피돌봄자, 교사-영유아, 학교-가정 등 대조되는 의미관계로 접근되는 이분법적인 돌봄 논의를 넘어, 다양한 존재들이 공존하며 융합하는 관계적 영역으로 우리의 주의를 돌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봄의 인식론적 전회를 통한 돌봄통합교육과정이 자칫 지식탐구 차원으로 협소하게 이해되어 신체적 돌봄의 중요성이 경시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들기도 합니다. 신체돌봄과 분리된 돌봄통합교육과정은 돌봄에 대한 새로운 사유를 열어주기보다 지식의 인식론적 위계를 재생산하는 장치로 작동될 수 있습니다. 먹이고 재우고 씻기고 배변하는 양육 수행 안에서, 어린이와 교사의 신체는 접촉과 감응을 주고받으며 내부작용할 수 있습니다. 돌봄의 감응은 영유아와 교사, 부모 모두의 삶 안에서 상호관계성에 기초한 내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9 개정누리과정의 놀이중심 교육과정 실행에서 유아-유아, 유아-교사, 유아-환경 간의 다양한 관계맺음에서 생겨나는 의미창출은 유의미한 배움으로 이해됩니다. 마찬가지로, 돌봄이 중심이 되는 통합교육과 통합교육과정은 보육과 유아교육 현상에 관여된 모든 존재들이 마주침을 통해 만들어가는 존재-인식론의 관계적 실행으로 접근되어야 할 것입니다.

충분히 좋은 돌봄을 제안하며

마지막으로, 모든 어린이를 위한 영유아교육과 보육은 다양성과 차이가 존중되는 돌봄통합의

방향으로 접근되었으면 합니다.

앞서, 돌봄을 제공자-수혜자, 교사-영유아, 기관-부모 등 이분적인 사고로 접근하지 않고, 현상 안의 다양한 얽힘의 관계 속에서 의미를 생성해가는 존재-인식론의 실행으로 바라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존재-인식론으로서의 돌봄은 유보통합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현상 안에서 서로 내부작용하여 어떤 의미를 만들어내는지 그 차이가 가져오는 긍정의 변화를 기대하게끔 합니다.

지난 2차 토론회에 참여해주신 여러 부모님들께서 기관 간 그리고 기관 내 발생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청하셨습니다. 여기서의 격차해소는 분명히 영유아교육과 보육의 획일화된 제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놀이가 갖는 불확실성, 유동성, 변칙성, 개방성 등에 내재된 어린이의 유능성에 대한 믿음처럼, 돌봄이 중심이 되는 유보통합, 나아가 초등연계는 관계적 맥락에 따른 다양성과 차이를 기꺼이 품었으면 싶습니다.

흔히 이상적인 부모 역할로 ‘충분히 좋은 어머니(good enough mother)’ 개념을 들곤 합니다 (Winnicott, 1960, 백경훈, 2015 재인용). 충분히 좋은 어머니는 온종일 자녀에게 집중하며 요구를 들어주는 완벽한 부모가 아니라, 아동이 적절한 수준의 좌절을 경험하며 독립심과 자율성을 기를 수 있도록 충분히 좋은 돌봄을 제공합니다. 모든 어린이를 위한 유보통합 논의에서도 완벽함의 강박을 내려놓고 어느 정도의 빈틈과 차이가 허용되는 충분히 좋은 돌봄을 지향하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좋은 돌봄이 무수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어린이들과 가정, 교사, 기관, 정책자들에게 격차가 아닌 차이로서 이해되기를 바라며 토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참고문헌

- 백경훈 (2015). 아동돌봄제도의 젠더효과와 성평등전략: 중산층 중심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양옥승 (2004). 보살핌의 텍스트로서 유아교육과정 이해. 유아교육연구, 24(4), 247-262.
- Barad, K. (2007). *Meeting the universe halfway: Quantum physics and the entanglement of matter and meaning*. Durham, NC: Duke University Press.
- Murris, K. (2021). 그림책과 철학하기를 통한 교육적 변화: 포스트휴먼 어린이 (이연선 외 공역). (원전은 2016년 출간)

토론 6

온종일 이어지는 교육적 돌봄을 위하여

한 종 화(강릉원주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유아교사를 거쳐 유아교육과 교수로 재직 중인 저에게 유보통합처럼 답답한 단어는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관련 연구나 관련자들의 이야기를 접할수록 어린이의 목소리를 엿듣기보다는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이 얼마나 깊은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 자신도 ‘누구를 위해, 왜, 무엇을, 어떻게 통합해야 할지, 이 정도라면 유보통합 꼭 해야 하나?’ 하는 회의적인 물음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보통합은 잘 준비된 먼 훗날이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특히 부처 통합을 시작으로 하자는 송대헌 선생님의 제안은 지금까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점이었고, 실천적인 힘을 가진 새로운 돌파구로 다가왔습니다. 이어지는 토론회에서 교육의 주체인 부모의 권리와 책임, 장애 영유아 관련 이야기까지 함께 할 수 있어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1, 2차 토론회에서 의무교육과 무상교육에 대한 개념 차이가 확인되었고, 해결을 위한 실마리도 마련되었다면 오늘 이 토론회를 통해 통합된 영유아학교의 교육과 돌봄(보육, 양육)의 내용적 측면(콘텐츠)에 대한 새로운 방향이 설정될 것을 기대합니다. 이러한 연속 토론회에서 토론의 기회를 주신 어린이를 생각하는 모임과 발표자이신 임부연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임부연 교수님의 원고를 크게 3가지 제안으로 해석했습니다.

- 교육과 돌봄(양육, 보육 포함)의 의미 되찾기
- 유아기뿐 아니라 초등까지 교육과 돌봄의 경계 허물기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유보 통합에서 돌봄 통합으로의 변화 제안
- 학교를 기점으로 돌봄 사회를 구축하고, 돌봄의 내용으로 신체적 돌봄, 정서적 돌봄, 정치적 돌봄과 함께 4번째 유형의 돌봄으로 인식론적 돌봄 제안

한마디로 교육과 돌봄이라는 이분법에서 벗어난 교육적 돌봄을 온종일 정교사가, 영유아기뿐 아니라 초등까지 이어가자는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의 세 가지 제안 모두에 동의합니다. 여기에 몇 가지 첨언과 함께 온종일 교육적 돌봄이 이루어지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몇 가지 소견을 더하겠습니다.

■ 몇 가지 첨언

1. 교육과 돌봄(양육, 보육)의 의미 되찾기

발표자께서 소개하신 양육, 보육, 돌봄, 교육뿐 아니라 가르침, 학습, 배움, 수업, 활동, 놀이에 이르기까지 우리 분야에서 통용되고 있는 용어들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한 돌봄을 넘어 교육적 경험이 되도록’, ‘보육은 돌봄과 관계 형성에 기초함을 강조’, ‘교육이 강조되면 가르침만 남게 될 가능성’과 같은 표현에서도 교육과 돌봄(보육)에 대한 이분법적 사고가 자리하고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르치다(지식이나 기능, 이치 따위를 깨닫게 하거나 익히게 하다, 그릇된 버릇 따위를 고치어 바로 잡다)와 보살피다(정성을 기울여 보호하며 돕다)는 대립된 개념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교육이나 가르침이란 단어에 가르침의 내용과 방식이 한정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인지 교육 편중과 같은 문제도 있지만, 교육과 가르침 자체가 불필요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가르침의 내용과 방식을 회복해야 합니다. 2019 개정 누리과정과 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의 실행도 이러한 회복의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반대로 장시간 보육과 돌봄에 교육적 접근을 쉽게 이어가기 어렵지만 그렇다고 보육과 돌봄이 결핍의 용어나 교육적 접근의 부재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교육은 본래 관심과 관계를 포함하지 않고는 의미가 완성되기 어렵다는 발표자의 지적을 상기하며, 교육과 돌봄(보육)은 한쪽이 다른 쪽보다 우월하거나 열등한 대립적 개념이 아니며,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맞대어 있으며, 양육, 보육, 돌봄, 교육 모두 영유아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하도록 돕기 위한 우리의 역할을 설명해 주는 유사어라고 생각합니다.

2. 유아기뿐 아니라 초등까지 교육과 돌봄의 경계 허물기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유보 통합에서 돌봄 통합으로의 전환

더없이 신선한 제안이었습니다. 정규과정과 방과후 돌봄교실 간의 경계를 허물어 교육과 돌봄의 통합이 유아기뿐 아니라 초등까지 이어지는 멋진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3. 학교를 기점으로 돌봄 사회를 구축하고, 돌봄의 내용으로 신체적 돌봄, 정서적 돌봄, 정치적 돌봄과 함께 4번째 유형의 돌봄으로 인식론적 돌봄 제안

모든 돌봄의 행위가 가정에서만 아니라 친족, 지역사회, 국가, 지구 전체를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우선시 되는 것을 의미하는 보편적 돌봄(손병돈, 2022)을 학교를 기점으로 실천하여 돌봄 사회를 구축하자는 제안은 매우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이러한 돌봄 사회가 구축된다면 돌봄 특히 긴급 돌봄을 여성만의 몫으로 치부했던 문제도 조금씩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요?

또한, 돌봄 선언에서 제안한 세 가지 돌봄에 인식론적 돌봄을 더하자는 발표자의 의견 역시 동의합니다. 또한, 이 모든 돌봄에 인식론적 돌봄이 바탕이 되며, 이를 토대로 신체적 돌봄, 정서적 돌봄, 정치적 돌봄을 넘나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발표자께서도 제4유형으로 제안하셨지만 돌봄의 지도나 Bergson(2005)의 정서, 기억-이미지에 대한 인용 글(정서는 신체가 가진 경험에 대한 기억에서 만들어진다. 인간의 인식행위는 그 자체가 경험과 정서의 복합물이고, 언

어와 표상의 형식은 사고와 지식의 작용으로 뒤이어 발생한다. 이때 인간 의식의 아주 근원에서 작용하는 기억-이미지는 모든 인식행위의 근원이다.)로 이 4가지 돌봄이 서로 얽혀있음을 그려 주셨습니다.

영유아의 일상과 삶의 매 순간이 모두 가치로운 경험의 순간, 교육적 돌봄의 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주 어린 영아의 의, 식, 주를 해결하는 일상적 돌봄의 순간에도 영아와 시선을 맞추고 영아의 정서를 살피며 대화하여 영아가 그 순간의 감정과 의미를 몸과 마음으로 감각한다면 신체적 돌봄, 정서적 돌봄, 정치적 돌봄과 교육적 돌봄이 함께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기서 어디까지가 신체적 돌봄이고 어디까지가 정서적 돌봄이며 또 어디서부터 정치적 돌봄인가 구분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신체적, 정서적, 정치적 돌봄의 매 순간이 교육적 돌봄의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삶의 매 순간이 가치로운 경험의 순간이며 이것은 곧 교육의 순간, 교육적 돌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온종일 교육적 돌봄이 이루어지기 위해

1. 영유아의 삶과 삶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내실 있는 교육적 돌봄 실천

영유아학교는 교육적 돌봄을 내실 있게 실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영유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과 삶을 최우선으로 한 의사결정을 행해야 합니다. 영유아학교는 미래의 산업일꾼을 양성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유아가 실존적 존재로 자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영유아의 놀 권리, 배울 권리뿐 아니라 실 권리도 보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온종일 현 국가 수준의 영유아교육과정인 2019 개정 누리과정과 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이 농도 짙게 실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영유아가 최대한 자유롭게 자신의 현재의 관심사(욕망)에 따라 놀이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영유아가 곧 교·보육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영유아와 교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적 돌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 경감이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요구(권리)도 고려해야 합니다. 부모의 요구에 열린 마음으로 귀 기울여야 합니다. 다양한 방과후 특성화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 이러한 요구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특성화 프로그램이 영유아를 위한 교육적 돌봄에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혹은 장애 요인은 아닌지 검토해야 하며, 이와 관련된 제도적 장치도 필요해 보입니다.

문화예술 강사제가 교육계에 도입되게 된 배경을 거슬러 올라갈 때, 앞 토론회에서 소개되었던 지역의 유능한 문화예술 강사를 지원한다는 세종시 사례를 모두 일반화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우리만 영유아와 생활할 수 있다고 아집을 부리는 것도 문제지만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이나 강사에게 영유아의 교육과 돌봄의 장애 자리를 내어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특히, 교사의 영유아교육과 돌봄 시간을 줄이는 방편으로 이러한 프로그램이 활용되는 것은 더 큰 문제를 지닐 수 있습니다.

2. 복수의 정교사 간의 협력적 학급 운영 체계 구축

특성화나 특별활동을 진행하며 한 교사가 온종일 담당하는 사립유치원, 교육과정반과 방과후 과정반으로 나뉘어 운영되는 국공립유치원, 4시 이후 시간연장 전담교사가 담당하는 어린이집. 모두 온종일 교육적 돌봄을 이어가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이것은 현재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근무하시는 교사의 소양이나 자질과 같은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한 예로, 시간연장 전담교사의 경우 4시 이후 근무라는 근무 시간의 특수성으로(교사 수급 자체도 어렵고), 교육이나 연수의 기회도 전무한 상태입니다.

장시간 동안 영유아를 교육하고 돌보는 일은 교사의 신체적, 정서적 소진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교사가 교육적 돌봄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영유아와 함께하는 시간 이외 교육과정 운영을 준비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오전, 오후, 교육, 돌봄(보육)의 경계를 허물어 여러 정교사가 협력하여 온종일 교육적 돌봄이 이어질 수 있도록 복수의 정교사가 2교대 또는 3교대의 협력 운영 체제를 구축할 것을 제안합니다. 어린이집만 하더라도 누리보조, 영아보조, 시간연장 전담교사의 인건비 지원 예산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제안이 이상적이지만 불가능한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현 2개 학급 정도의 영유아를 정담임 3인이 담당하고 시차를 두어 순환 근무한다면 어떨까요? [예: 7:30~3:30(8:00~1:00)/9:00~5:00(10:00~3:00)/12:00~8:00(2:30~7:30)] 정교사 간의 교육과정 협의와 연속적인 학급 운영으로 온종일 이어지는 교육적 돌봄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직교사의 입직 학력과 경력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학력의 교사가 정교사, 부교사, 보조교사로 팀이 되어 함께 일하고 책임 교사에게 supervising의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교사의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 문제, 공무원과 정규직 간의 갈등 사례 등을 고려할 때 단순한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3. 통합된 영유아학교 교사 양성을 위한 교사 교육 시스템 구축

역량 있는 교사가 오랫동안 교직에 머무를 수 있도록 지원함도 온종일 이어지는 교육적 돌봄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교사가 갖춰야 할 조건이 학력만은 아닙니다. 학력을 갖춘 것만으로 좋은 교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 부모의 요구에서도 학력은 후순위였습니다. 그러나 학력은 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잠재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시간과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다는 점도 명확합니다. 특히 교사의 자율성, 책무성과 함께 교육과정 문해력이 강조되는 현 교육과정을 위해 통합 영유아학교의 교사 교육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교사 양성기관(학과중심 vs 학점중심), 교직 교과목과 영아 관련 교과목, 교사 양성기관의 정원 조정 문제를 포함하여 대학 입학 자원의 고갈이라는 현 고등교육의 현실 등 해결해야 할 다양한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초중등 교사 교육에서 도입 예정인 실습학기제를 대비하여 예비교사 교육기관(대학)과 영유아학교의 실습 연계 시스템 구축도 필요합니다. 예비교사 역시 MZ세대라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4. 현직 교사 자격증 통합을 위한 재교육과 대체 교사제 도입

예비교사 교육과정에서 학력과 교사 교육과정의 내용을 다원적으로 고려해야 하지만, 학력이라는 하나의 조건만으로 영유아와 지금까지 살아왔던 교사들이 통합된 영유아학교를 떠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입직 교육 연한, 재직 기간 등을 고려하여 현직교사들의 자격증 통합을 위한 교사 재교육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현직교사의 재교육은 반드시 근무 시간에 이루어져야 하며, 따라서 현직 교사의 재교육 기간 대체 교사제도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우수한 인재들이 통합된 영유아학교의 교사를 희망하며 우리 분야의 문을 두드리고 오랫동안 영유아와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교사의 처우와 신분 보장도 확인해야 합니다. 통합 영유아학교 교사의 신분과 처우는 점진적이더라도 현재의 국공립유치원 교사 수준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5. 이외 물리적·재정적·정책적 지원

영유아학교의 공간 개혁,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의 하향 조정, 가정 보육을 선택한 부모를 위한 지원…… 너무 많지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통합 영유아학교를 가까운 미래에 만난다는 행복한 상상을 해봤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이러한 미래를 조금이라도 앞당기는 마중물이 되길 희망합니다.